

권 용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수도권 인구 이동의 변화, 1990-2003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속 경

수도권 인구 이동의 변화, 1990-2003

권용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이 속 경

인 준 서

이숙경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에서는 1990년에서 2003년까지의 전국 권역별 인구이동흐름을 살펴보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도권내의 전입전출의 이동상황을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도간의 장거리 이동보다 동일 시도내의 단거리 이동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는 거리의 제약이 없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총인구수는 수도권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총전입률은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순으로 나타난다. 1990-2003년의 순전입 인구 변화에서 꾸준히 양의 수치를 나타내는 곳은 수도권뿐이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전입초과, 타 권역전출초과'로 압축된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이외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일부 시도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순전입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으로 꾸준히 전입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도시 개발이후 쾌적한 환경과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서울의 광역화 및 교외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도의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전입지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 서울로부터 40km이내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의 핵심적인 인구 이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해 있거나 경인선, 경부선, 의정부-동두천축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통망을 따라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교외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수도권내의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전입·전출이 높은지역은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로 나타난다. 인천광역시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남구, 남동구, 부평구이고, 경기도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기타요인으로 나타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수도권 인구 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신도시 건설은 주택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를 유인하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해 나간 자리에는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주택여과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도시화가 극대화 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 특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 첨단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로 인구 분산을 유도한 정책적인 조치도 영향을 받는다.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로 확충과 중심도시의 확장 또한 교외지역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보다 저렴한 지가와 쾌적한 환경 또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을 만들게 한 요인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3
3. 인구 이동의 개념	4
1) 인구이동의 정의	4
2) 전입률과 전출률의 관계	5
3) 이동행위에 대한 이론	7
II.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10
1. 전국인구이동의 흐름	10
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14
3.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	25
III. 수도권의 인구이동	31
1. 수도권의 인구 규모 및 변화	31
1)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 및 변화	32
2)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 및 변화	34
3) 경기도의 인구 규모 및 변화	36

2.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38
1) 서울특별시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38
2) 인천광역시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39
3) 경기도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40
3. 전입 전출지의 인구 이동 현황	41
1)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지	41
2) 인천광역시로의 전입지	46
3) 경기도로의 전입지	51
IV.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8
1. 주택의 수요와 공급	58
2.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63
3. 기타요인	69
V. 결 론	71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 례

〈표 1〉 연도별 전국 인구 이동추이,1990-2003	11
〈표 2〉 권역별 전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12
〈표 3〉 가구주의 이동거리별 이동원인	14
〈표 4〉 전국 총인구 추이,1990, 1995, 2000	14
〈표 5〉 연도별 전국 총전입률,1990-2003	16
〈표 6〉 경상권 총전입률,1990-2003	17
〈표 7〉 각 권역별 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19
〈표 8〉 수도권으로 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20
〈표 9〉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25
〈표 10〉 수도권 순전입과 서울에서의 경기도로의 순전출,1990-2003 · 27	27
〈표 11〉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전입지, 2001-2003	29
〈표 12〉 수도권내 총인구 추이,1990,1995,2000	31
〈표 13〉 서울특별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33
〈표 14〉 인천광역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35
〈표 15〉 경기도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36
〈표 16〉 서울특별시의 순전입,1990-2003	38
〈표 17〉 인천광역시의 순전입,1990-2003	39
〈표 18〉 경기도의 순전입,1990-2003	40
〈표 19〉 서울시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1995-2003	41
〈표20-1〉 서울특별시의 전입지별 인구이동현황,1995-1999	42
〈표20-2〉 서울특별시의 전입지별 인구이동현황,2000-2003	43
〈표 21〉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입률,1995-2003	44
〈표 22〉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45

〈표 23-1〉 인천광역시의 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1995-1999	46
〈표 23-2〉 인천광역시의 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2000-2003	47
〈표 24〉 인천광역시의 전입지별 인구 이동 현황,1995-2003	48
〈표 25〉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입률,1995-2003	49
〈표 26〉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출률 ,1995-2003	50
〈표 27-1〉 경기도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1995-2003	51
〈표 27-2〉 경기도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1995-2003	52
〈표 28〉 경기도의 전입지별 인구 이동 현황 ,1995-2003	53
〈표 29〉 경기도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54
〈표 30〉 경기도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56
〈표 31〉 수도권 주택건설 현황률,1995-2003	59
〈표 31〉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추이,1990-2003	64
〈표 32〉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65
〈표 33〉 권역별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01년	67

그 립 차 례

〈그림 1〉 연구의 공간적범위	3
〈그림 2〉 전국 인구이동 추이,1990-2003	11
〈그림 3〉 권역별 전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12
〈그림 4〉 전국 총인구 추이, 1990, 1995, 2000	15
〈그림 5〉 연도별 전국 총전입률,1990-2003	16
〈그림 6〉 경상권 총전입,1990-2003	17
〈그림 7〉 수도권 각권역별 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19
〈그림 8〉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1990-1994	22
〈그림 9〉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1995-1999	23
〈그림10〉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2000-2003	24
〈그림11〉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26
〈그림12〉 수도권 순전입과 경기도로의 순전입,1990-2003	27
〈그림13〉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전입지,2001-2003	29
〈그림14〉 수도권내 총인구 추이,1991,1995,2000	31
〈그림15〉 서울특별시의 인구 구성비,1990,1995,2000	34
〈그림16〉 인천광역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35
〈그림17〉 경기도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37
〈그림18〉 서울특별시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1990-2003	38
〈그림19〉 인천광역시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1990-2003	39
〈그림20〉 경기도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1990-2003	40
〈그림21〉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44
〈그림22〉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46

〈그림23〉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입률,1995-2003	50
〈그림24〉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51
〈그림25〉 경기도에서의 총전입률,1995-2003	55
〈그림26〉 경기도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57
〈그림27〉 수도권 주택건설 현황률,1995-2003	59
〈그림28〉 서울시에서 경기도 시·군으로의 전출률,2003	62
〈그림29〉 수도권 지역의인구과 면적 비,2001	64
〈그림30〉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추이,1990-2003	65
〈그림31〉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66
〈그림32〉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66
〈그림33〉 권역별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01년	68

I. 서 론

1. 연구 목적

인구이동(migration)은 지표상의 한 거주지로부터 다른 거주 장소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거주이동(mobility)이 거주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데 반하여 인구이동(migration)은 항상 거주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이동(mobility)과는 구별된다. 또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정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이동은 인간이 거주지를 변화하기에 관련되는 변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하는데 가장 어렵다.¹⁾

인구이동은(migration)은 사회적, 인구학적 변수의 공간적 패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특히 도시화가 오래 지속된 대도시에서의 중요한 인구변화요인이며 공간패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인구이동은 각 지역의 인구학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은 도시화와 근대화를 진전시켜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인구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우위인 대도시 지역으로 그 흐름이 집중되는 이촌향도의 인구

1) Demko George j., Rose Harold M., and Schnell George A., 1980, *Population Geography : A Reader*. McGraw- Hill Book Company, p.286.

2) 이희연 1998, *인구지리학*, 제4판, 법문사, p.426.

이동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괄목할 만하며, 이러한 도시화의 결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³⁾

1964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인구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많은 지역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로 주택가격의 급등,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지역간 불균형 발전 지역갈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그 양상을 달리하여, 서울지역에서는 인구증가가 완화되는 반면 서울 주변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나타내는 인구 집중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순전입 인구가 평균적으로 2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집중 양상도 90년대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다. 즉, 타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아닌 수도권내에서 인구 재편성으로 양상이 전환되고 있다. 수도권내에서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더 많이 유출되어 순전출 인구가 많은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순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그 영향에 따라 이제까지의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정책이 아닌 새로운 각도로 수도권인구 정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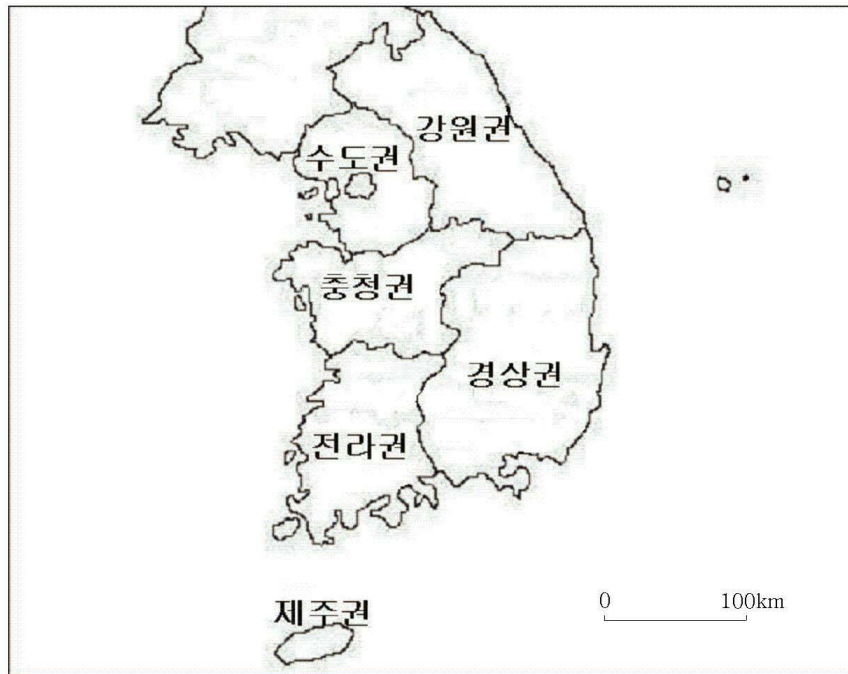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관련된 센서스 자료 및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흐름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의 인구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내의 주택건설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을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3) 권용우·이자원, 1995, “수도권 인구이동의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 (4)

2. 연구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범위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의 여섯 개 권역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구성된 지역을 수도권으로, 강원도를 강원권으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로 구성된 지역을 충청권으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로 구성된 지역을 전라권으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로 구성된 지역을 경상권으로, 제주도를 제주권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림 1>

시간적 범위로 전국 권역별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인구이동 흐름을 수도권 내에서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이동현상과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인구이동의 개념

1) 인구이동의 정의

인구이동은 사람들의 ‘지역 사이의 움직임(공간적 이동)’을 말하며, 움직임이란 지역단위의 설정, 측정기간의 설정, 이동의 측정방법에 의해 결정된다(Plane and Rogerson,1994). 공간적인 이동은 아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대개 ① 집과 직장사이의 이동 ② 취업자, 학생, 일시 거주자 등과 같이 계절적 혹은 일시적 이동 ③ 일자리의 변화 없이 같은 도시 내 이동 ④일자리 등의 변화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⑤국외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개 공간적 이동의 범주에서의 ④와 ⑤를 이동(migration)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동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구이동의 구분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와 국제이동으로 대별되며 국내이동에서의 농촌- 도시, 도시- 도시 교외지역, 군간, 시도간, 지구간의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태환·김두섭,1990). 대개의 연구가 농촌-도시, 시도 간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일정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특정 경계지역, 시군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로 한다.

이동은 총이동과 순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총이동은 전출, 전입 상관없이 전부 합한 것을, 순이동은 전출과 전입의 차이를 말한다. 인구이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한 총량적인 인구이동 현상보다는 순인구이동이 사회 현상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인구이동의 총계개념과 순계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순이동은 결과적으로 관찰대상 지역에서 인구이동에 의해 인구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되었는지를 말하며, 총이동은 이동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인구이동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는 절대치보다 인구이동률(transition probability)이 확률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므로 더 유용할 때가 많다. 이동률은 이동의 속도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계열로 비교하면 어떤 특정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어느 한 지역(i지역)에서 다른 한 지역(j지역)으로의 이동속도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간 또 지역간 이동량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입률과 전출률을 이용한다. 총이동율은 지역단위간 전입과 전출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또 지역단위 세트 간에 비교를 하는데 주로 이용된다.⁴⁾

2) 전입률과 전출률의 관계

인구이동에 있어서 전입률과 전출률의 관계를 기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직감적 관계(intuitive perspective),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 perspective), 비대칭적 관계(lowry의 asymmetrical relationship), 빌의 관계(beat's findings)로 볼 수 있다.(Plane and Rogerson,1994)

4) · 이동률: i지역에서 j지역의 이동자 수에 대한 i 지역의 인구비

$$P_{ij} = M_{ij}/P_i \quad M_{ij}: \text{시간 } t-1 \text{에서 } t \text{까지 유출지 } i \text{에서 유입지 } j \text{로의 이동흐름}$$

$$P_i: \text{시간 } t-1 \text{의 유출지의 인구}$$

· 총전출: 지역 k에서 총전출은 지역 k에서 다른 지역(j)으로 전출한 인구(m)를 더한 것

$$OM_k = \sum m_{kj}$$

· 총전입: 지역 k에서 총전입은 다른 지역(i)에서 지역 k로 전입한 인구(m)를 더한 것

$$IM_k = \sum m_{ik}$$

· 전출률: k 지역의 총 전출을 k지역의 인구(P)로 나눈 것

$$OMR_k = (OM_k/P_k) * K \quad K: \text{상수}$$

· 전입률: k 지역의 총 전입을 k지역의 인구(P)로 나눈 것

$$IMR_k = (IM_k/P_k) * K \quad K: \text{상수}$$

· 순이동: 어떤 지역의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의 차이이며, 순이동율은 단순히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이임

$$NM_k = IM_k - OM_k$$

· 직감적 관계: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낮은 전출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혹은 생활환경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쾌적한 환경에서는 떠날 이유가 없다는 관점이다.

· 양의 상관관계: 많은 경우에 위의 관계와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지역의 총이동비가 총전입과 총전출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전이, 연령구성, 이동의 축적(migrant stock)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전이란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 전입인구를 유도하며, 또한 부유한 지역의 노동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인구이동을 특성별로 세분화해보면 연령과 이동성향과 관계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노동이동 인구를 차지하는 연령층이 청년이다. 최근에 높은 전입인구를 가진 지역은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반면에 전출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러한 연령층의 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이 많은 지역은 항상 전출도 많을 것이라고 고려되어야 한다. 이동의 축적은 연령층과 관계가 깊은 데 한번 이동을 하면 계속 이동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개 순인구이동이 높은 지역은 이동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으며, 지역의 조건이 변하게 되면 이동도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 라우리의 비대칭관계: 90개의 미국 대도시 지역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라우리(1966)의 연구에서 유출지와 유입지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비대칭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인구이동의 흐름은 유출지와는 관계없이 목표지의 임금과 실업률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빌(1969)은 보다 균형적이고 정교한 관점에서 전입과 전출의 관계

를 규명하였는데, 인구이동 분석에서 특히 지역단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빌은 지역단위로 SEA(State Economic Area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州)내에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카운티를 묶은 것으로, 따라서 농촌지역과 대도시지역으로 분리되었다. SEA의 전입·전출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바나나형태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데, 총전출률이 높은 두개의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한 곳은 순전출률이 높은 지역(경제적으로 침체된 농촌지역)과의 다른 한 곳은 순전입률이 높은 지역(경제적 활기가 있는 대도시지역)이다. 빌의 연구결과는 직감적인 관계와 라우리/코디-헤이즈(Lowry/Cordey-Hayes)의 관계를 혼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버그와 바이닝(Kriesberg와 Vining, 1978)은 일본 지역간의 인구이동 흐름을 연구한 것에서 빌이 논의한 역동적인 관계를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도시주변 농촌지역의 경우 전입이 아닌 전출에서의 변화가 순이동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도시의 중심지역의 경우 순이동은 총 전입인구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전입과 전출의 지역적 관계의 검토에서 전출 지역과 전입지역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거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라우리/코디-헤이즈(Lowry/Cordey-Hayes)와 빌의 관계에서 전입인구의 범위가 전출인구의 범위보다 더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즉 어느 지역의 전출인구는 그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지만 전입인구는 그 지역 외의 모든 지역의 전출인구가 그곳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이동행위에 대한이론

인구이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환경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욕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권태환·김두섭,1990)

첫 번째 요인이 인구에 대한 생태학적인 설명으로 인구의 이동은 주어진 지역 또는 지역들의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하나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배출(압출)-흡인요인 모형에 따라 이동의 요인을 찾으려는 것이 이러한 생태학적 균형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지역이 인구의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의 경우 흡인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의 변천과 공업화,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기술, 가치, 조직, 제도 등은 배출요인으로 근대적인 것들은 흡인요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상승이동에의 욕구에서 이동요인을 찾는 이론은 이동의 동기와 지역사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자인 동기에 대한 것으로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달성이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후자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이 좋은 지역을 찾아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입, 전출,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전입 등을 분석하려 한다. 이때 전입이란 특정한 행정구역(읍면동) 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옴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전출은 행정구역(읍면동) 경계를 넘어 특정지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감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이다. 시도내 이동이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같으나 읍·면·동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의미

한다. 시도간 이동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로, 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한다. 또한 권역별 이동이란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 권역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간 이동의 의미와 흡사하다. 순전입이란 일반적으로 순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특정한 지역내의 전입자수에 전출자수를 뺀 수치를 말한다.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를 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라고 한다. 보통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출되어 전출초과의 경우는 부(負,-)로 표시된다.

Ⅱ. 우리나라 인구 이동

1. 전국 인구 이동의 흐름

전국적인 인구이동의 흐름을 보면 총이동률이 1990년에는 22.0%이고 1993년에는 19.7%로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최저치인 17.4%로 나타내다가 1999년에는 20.0%로 다시 크게 증가하고 20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0.4%로 증가하고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시 19.7%로 감소하였다. <표 1>

이는 1998년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1999년에는 1998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의 극복에 따른 경제여건이 약간 호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1990년도의 시도내 이동자수는 6,228명으로 이동률은 14.5%를 보이나 시도간 이동은 3,231명으로 7.5%로 나타났다. 1997년의 시도내 이동률은 12.9%, 1998년에는 11.7% 이동을 하였으나, 1999년에는 13.6%로 1998년보다 1.9%로 급격히 이동수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도간 이동자수는 1997년에는 6.1%, 1998년에는 5.7%, 1999년에는 6.4%로 전년도에 비해 0.7%의 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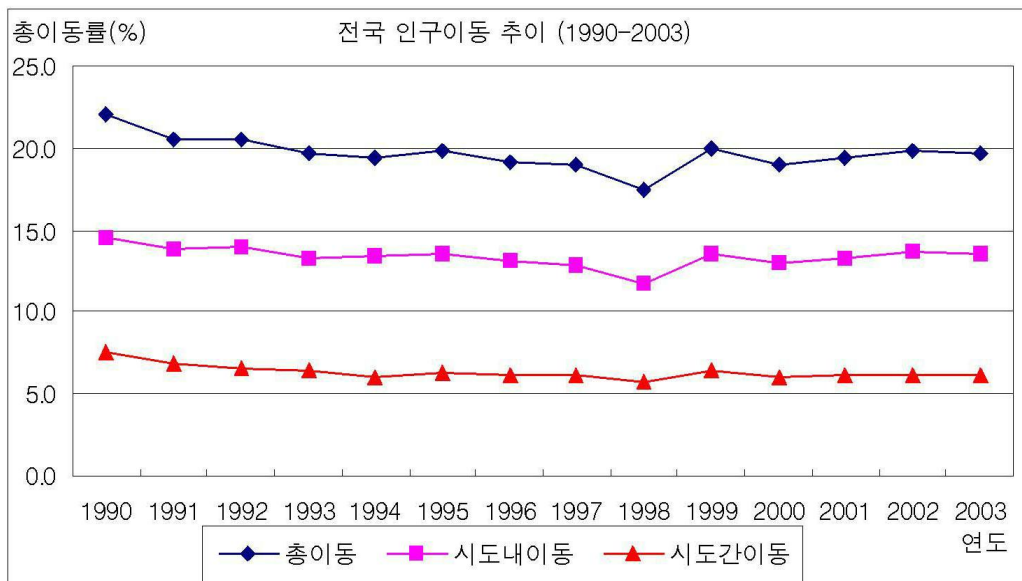
이 또한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1999년에는 경제여건의 호전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의 시도내 이동률은 13.5%이고, 시도간 이동은 6.2%로 시도내 이동이 시도간 이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인 이동은 시도내 이동이 시도간 이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표 1〉 연도별 전국 인구가동 추이,1990-2003

(단위: 천명,%)

연도	총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이동	
	이동자수	이동률	이동자수	이동률	이동자수	이동률
1990	9,459	22.0	6,228	14.5	3,231	7.5
1991	8,981	20.6	6,023	13.8	2,958	6.8
1992	9,032	20.5	6,172	14.0	2,860	6.5
1993	8,807	19.7	5,943	13.3	2,864	6.4
1994	8,792	19.4	6,052	13.4	2,740	6.0
1995	9,073	19.9	6,208	13.6	2,865	6.3
1996	8,855	19.2	6,018	13.1	2,836	6.2
1997	8,820	19.0	5,981	12.9	2,838	6.1
1998	8,156	17.4	5,478	11.7	2,679	5.7
1999	9,435	20.0	6,411	13.6	3,025	6.4
2000	9,009	19.0	6,164	13.0	2,846	6.0
2001	9,290	19.4	6,358	13.3	2,932	6.1
2002	9,584	19.9	6,590	13.7	2,995	6.2
2003	9,171	19.7	6,509	13.5	3,008	6.2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 통계연보』, 1990-2003
이동률(Migration rate)⁵⁾



〈그림 2〉 전국 인구가동 추이,1990-2003

자료 : 〈표 1〉 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5) 이동률(Migration rate): 특정기간에 일어난 이동자와, 이동인구와 관련된 지역의 총인구와의 비율(%)로서 다음 산식이 이용된다.

$$m = \frac{M}{P} \times 100 \quad M: \text{특정기간 내의 이동자수} \\ P: (\text{작년말 주민등록인구} + \text{금년말 주민등록인구}) \div 2$$

권역별로도 또한 같은 권역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권역내 이동 다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전입으로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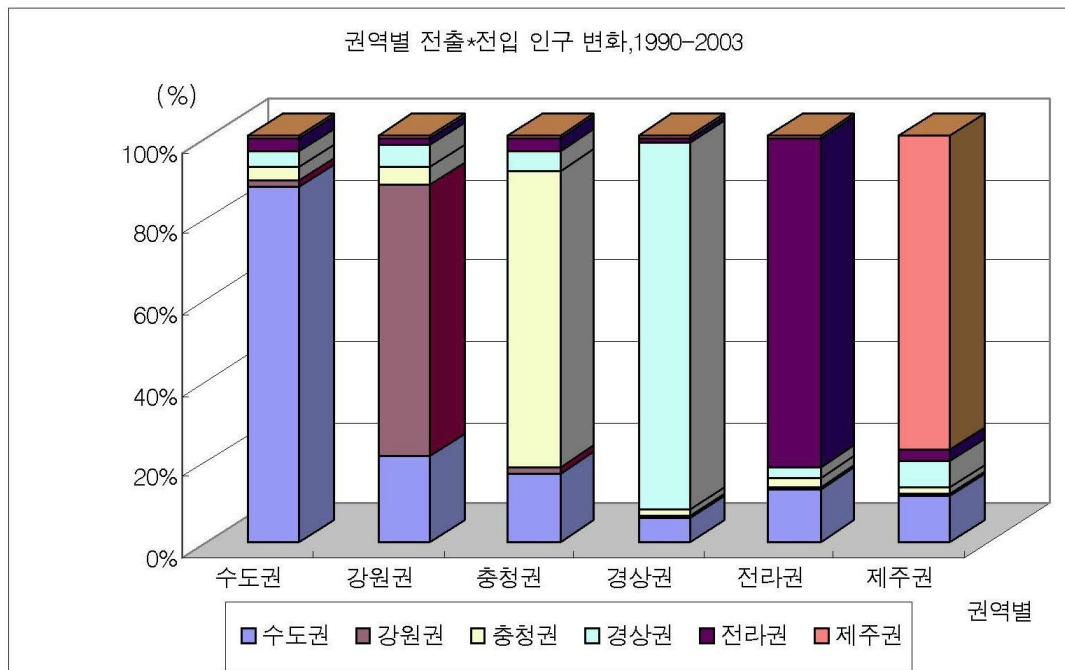
<표 2>

<표 2> 권역별 전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단위 : %)

전출 전입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수도권	4,447,033	56,303	146,012	128,387	131,754	11,212
강원권	68,675	181,717	13,178	13,785	4,420	584
충청권	160,224	11,558	631,881	32,333	23,954	1,513
경상권	193,613	13,987	41,539	1,990,748	28,924	6,194
전라권	174,977	5,125	29,528	28,088	836,443	3,054
제주권	13,083	606	1,752	5,672	2,891	75,858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3> 권역별 전출·전입 인구의 변화,1990-2003

자료 : <표 2>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 이외의 각 권역에서도 동일 권역 내에서의 인구이동 비율이 타 시도로의 전출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장거리이동보다는 단거리이동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접지역에서의 유입을 설명한 라벤슈타인(Ravenstein)의 이주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다.⁶⁾

1997년 인구이동의 유형별로 보면 이주 원인도 상이하다. 시도내 이동은 주택요인 49.0%, 가족요인 19.7%, 직업요인 17.7%가 높게 나타나고, 시도간 이동에서는 주택요인 15.9% 보다 직업요인 45.0%, 가족요인 21.7%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요인은 취업, 근무지 이동, 사업때문에 이동이, 가족요인은 결혼과 분가·독립으로 인한 이동이 주요 이유로 나타난다. 시도간 이동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요인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진학·학업을 위한 이동과 자녀교육을 위한 이동이 원인이 된다. 동읍면내와 동읍간내에서는 주택요인이 주류를 이루며 가족요인과 직업요인 및 주거근린 환경도 높아지고 있다. 자연환경 등 기타요인에 의한 이동은 구시군내 이동보다는 구시군간 이동에서, 이러한 시도내 이동보다 시도간 이동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단거리 이동보다는 원거리 이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6) 인구이동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라벤슈타인(Ravenstein)의 “이주법칙”에 관한 논거이다. 그는 단거리 이동이 이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동률은 거리에 반비례 한다는 점과, 이동은 농촌에서 소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루이스(Lewis)는 이주에 있어서의 공간개념을 중시하면서 라벤슈타인의 고전적 이주모형을 기초로 이주의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는 도시주변지역에서 보다 발전된 중심도시로의 단거리 이동이 이주현상의 주된 흐름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반경을 넓혀 간다는 단계별 이주형태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3〉 가구주의 이동거리별 이동원인

(단위: %)

이동원인 이동거리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주거 근린환경	자연환경	계
시도내	17.7	49.0	19.7	4.4	7.5	1.6	100.0
구시군내	14.2	56.0	17.6	2.8	7.9	1.5	100.0
동읍면내	11.7	63.0	13.7	2.0	8.2	1.4	100.0
동읍간내	16.0	51.0	20.4	3.4	7.7	1.5	100.0
구시군간	26.8	31.1	25.2	8.3	6.6	2.1	100.0
시도간	45.0	15.9	21.7	12.3	2.7	2.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특별조사보고서』, 1997

출처: 권용우외, 2001,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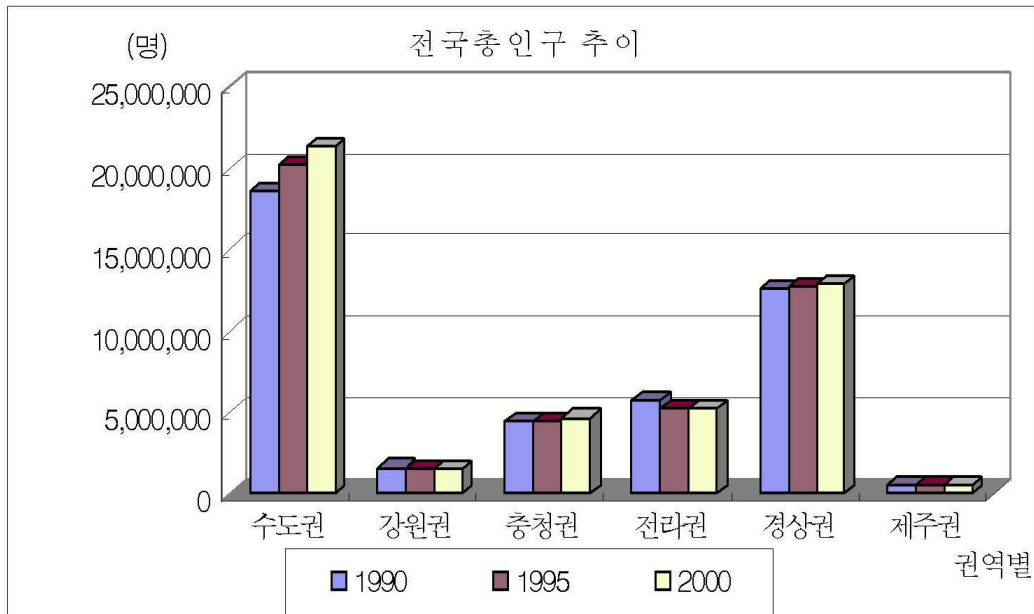
전국의 인구는 1990년에는 43,410,899명에서 2000년에는 46,136,101명으로 1990년에 비해 증가율은 5.9%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비율은 1990년에는 42.8% 2000년 46.3%이다. 〈표 4〉

〈표 4〉 전국 총인구 추이, 1990, 1995, 2000

(단위: 명 %)

	1990 (%)	1995 (%)	2000 (%)
수도권	18,586,128(42.8)	20,189,146(45.3)	21,354,490(46.3)
강원권	1,580,430(3.6)	1,466,238(3.3)	1,487,011(3.2)
충청권	4,453,190(10.3)	4,435,703(9.9)	4,680,095(10.1)
전라권	5,716,402(13.2)	5,226,522(11.7)	5,239,922(11.4)
경상권	12,560,144(28.9)	12,785,679(28.7)	12,861,323(27.9)
제주권	514,605(1.2)	505,438(1.1)	513,260(1.1)
전국	43,410,899(100)	44,608,726(100)	46,136,101(100)

자료: 통계청 인구 총조사, 1990, 1995, 2000



〈그림 4〉 전국 총인구 추이, 1990, 1995, 2000

자료 : 〈표 4〉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전국의 전입인구 중 1990년에는 51.8%가 수도권내 전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에는 48.5%로 떨어졌지만 1999년에 다시 52.1%가 전입해 왔다. 2003년에는 53.1%가 전입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권으로는 2003년도에 2.8%, 충청권으로는 9.1%, 전라권으로는 10.8%, 경상권으로는 23.1%, 제주권으로는 1.0%가 전입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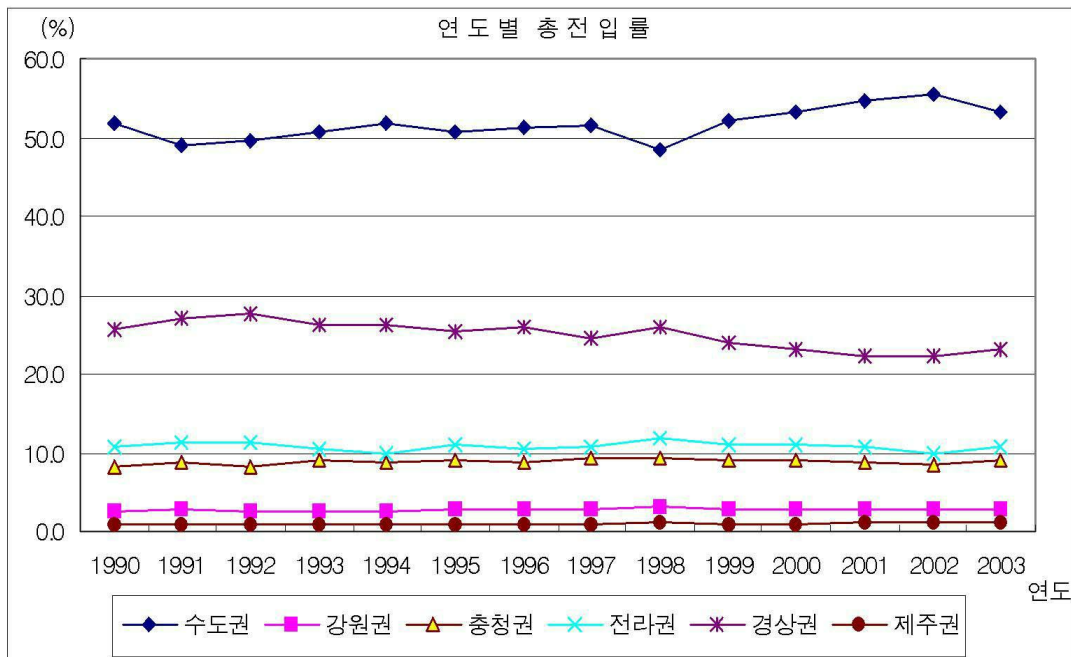
〈표 5〉

〈표 5〉 연도별 전국 총전입률,1990-2003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90	51.8	2.6	8.3	10.7	25.7	0.8
1991	49.1	2.8	8.8	11.3	27.2	0.8
1992	49.5	2.7	8.3	11.2	27.6	0.9
1993	50.8	2.7	9.1	10.4	26.2	0.8
1994	51.8	2.7	8.6	10.0	26.1	0.9
1995	50.7	2.9	9.0	11.0	25.5	0.9
1996	51.4	2.7	8.8	10.4	25.8	0.9
1997	51.5	2.9	9.4	10.8	24.6	0.9
1998	48.5	3.2	9.4	11.9	25.8	1.2
1999	52.1	2.9	9.1	11.1	23.9	1.0
2000	53.2	2.8	9.0	10.9	23.1	0.9
2001	54.7	2.8	8.6	10.7	22.2	1.0
2002	55.4	2.8	8.6	9.9	22.4	1.0
2003	53.1	2.8	9.1	10.8	23.1	1.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1990-2003



〈그림 5〉 연도별 전국 총전입률,1990-2003

자료 : 〈표 5〉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전입인구 순위로 볼 때 수도권이 전국의 전입인구를 50%이상 흡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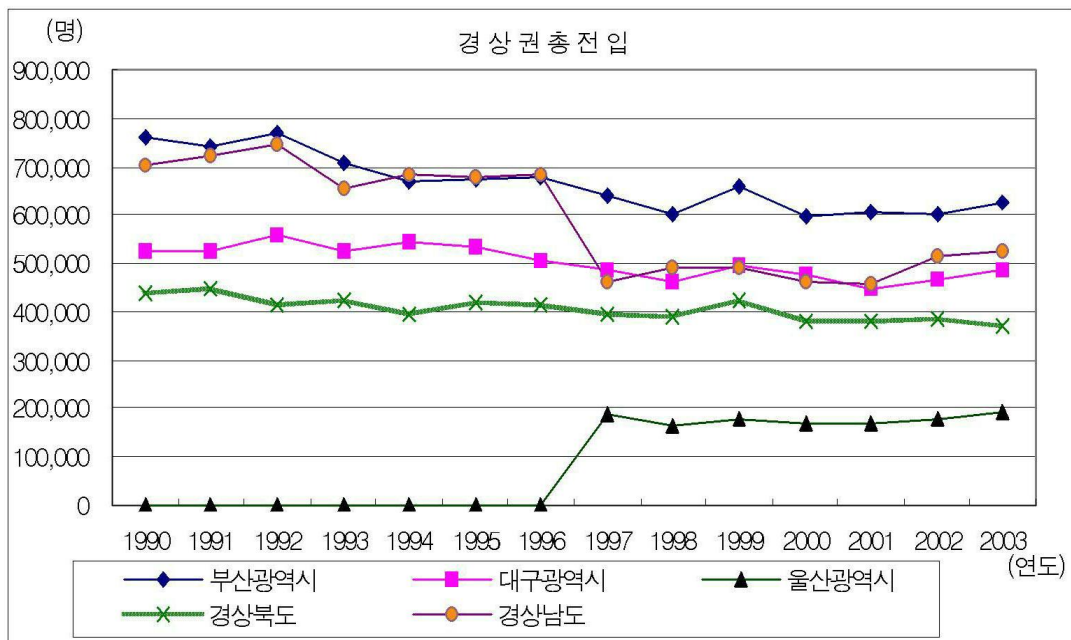
있어 최고의 순위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경상권이 다음으로는 전라권이 총전입률을 이루고 있다. 경상권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많은 전입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표 6>

<표 6> 경상권 총전입률, 1990-2003

(단위: 명)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1990	761,684	526,547	-	437,000	704,656
1991	741,748	525,249	-	449,029	723,250
1992	771,852	558,826	-	412,622	746,907
1993	708,358	524,585	-	421,328	656,486
1994	668,188	545,677	-	392,828	684,247
1995	676,037	534,013	-	419,925	679,704
1996	679,854	507,085	-	416,050	683,550
1997	641,886	485,263	185,987	395,678	459,955
1998	602,418	462,722	164,160	388,186	488,910
1999	660,060	496,811	179,485	424,035	490,751
2000	595,975	477,595	166,690	380,638	463,895
2001	604,650	448,898	170,587	380,826	458,485
2002	600,936	466,894	176,413	384,589	514,140
2003	625,355	487,515	191,255	371,006	523,88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6> 경상권 총전입, 1990-2003

자료 : <표 6> 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루어진 수도권으로의 집중화현상은 괄목할 만하다. 1990~2003년 동안 전국의 순전입 인구 변화에서 꾸준히 양(陽,+)을 나타낸 지역은 수도권 지역뿐이다. 나머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은 대부분 순전입이 부(負,-)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 전입초과, 타권역 전출초과’로 압축된다.

1990년의 전입초과를 나타낸 지역은 수도권과 제주권뿐이고, 다른 권역은 모두 전출초과 현상을 보인다. 강원권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전출자들이 많이 보이지만 1998년에는 8,890명이 순전입을 보여 전입초과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후로는 다시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은 전출초과현상이었지만 1993년에는 15,455명의 순전입을 보이고, 1996년에는 32,729명이 충청권으로 순전입 되었다.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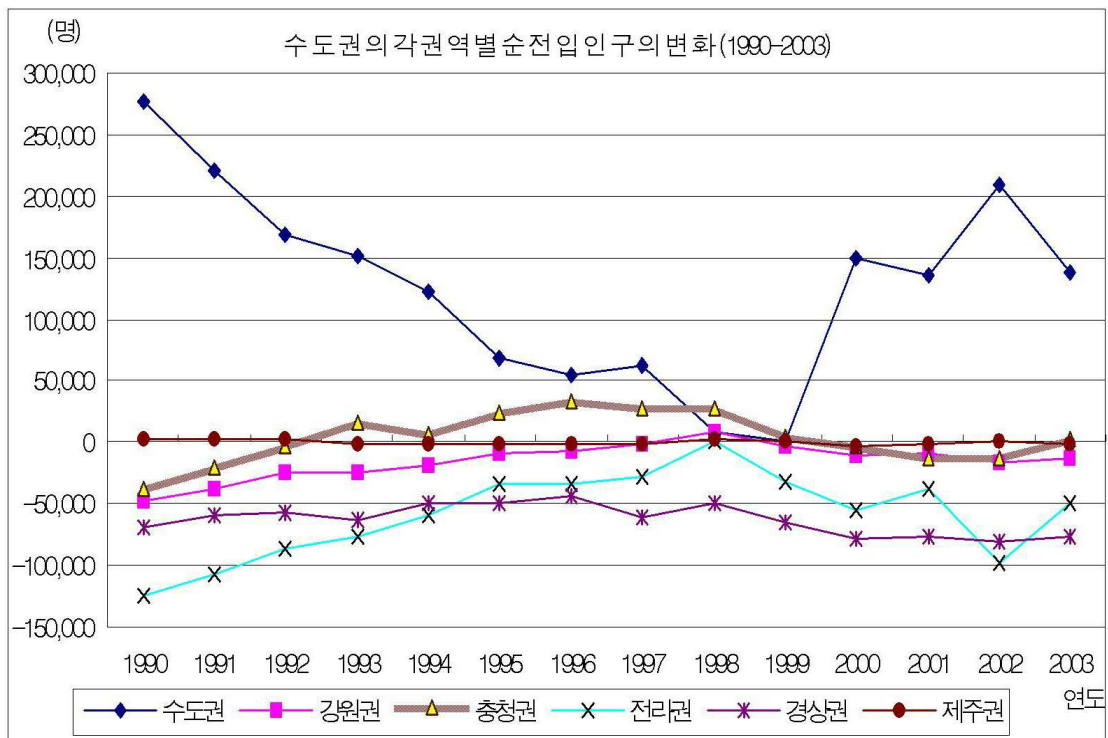
이는 첨단연구 단지가 입지하여 지식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 투자기관의 청사가 이전해 가 있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수도이전 문제로 인해 충청권의 순전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일관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각 권역별 순전입 인구의 변화, 1990-2003

(단위: 명)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1990	276,204	-47,637	-37,862	-124,933	-68,900	3,128
1991	220,581	-38,030	-19,960	-106,831	-58,536	2,776
1992	169,368	-24,845	-4,132	-85,757	-56,339	1,705
1993	151,529	-24,586	15,455	-76,864	-63,805	-1,729
1994	122,441	-18,471	6,288	-59,207	-48,906	-2,145
1995	69,172	-9,350	23,436	-33,300	-49,132	-826
1996	53,770	-7,870	32,729	-33,803	-43,733	-1,093
1997	62,469	-922	28,618	-28,762	-60,809	-922
1998	9,286	8,890	27,000	1,481	-49,187	2,530
1999	94,822	-3,798	5,248	-31,749	-64,704	181
2000	150,252	-11,134	-3,570	-55,142	-78,048	-2,358
2001	136,115	-8,113	-13,316	-38,456	-75,904	-326
2002	209,591	-17,181	-13,272	-98,532	-80,840	234
2003	136,904	-13,063	2,427	-48,829	-75,992	-1,447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7〉 수도권 의 각 권역별 순전입 인구의 변화, 1990-2003

자료 : 〈표 7〉 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으로 순전입 인구의 변화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표 8〉 수도권으로 순전입 인구의 변화, 1990-200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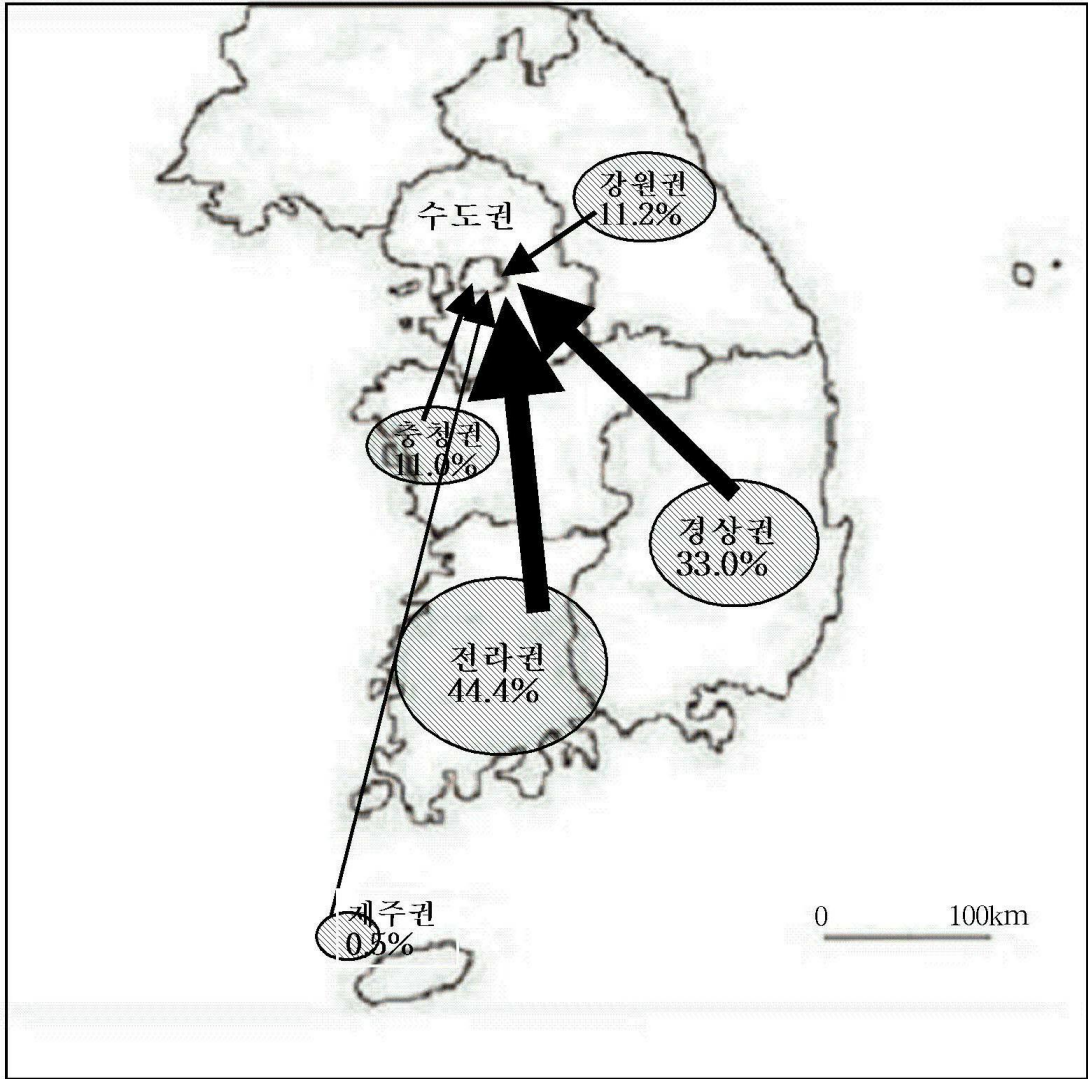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계
1990	34,928 (12.6)	52,358 (19.0)	113,390 (41.1)	75,346 (27.3)	182 (0.1)	276,204 (100)
1991	26,844 (12.2)	34,278 (15.5)	96,650 (43.8)	63,207 (28.7)	-398 -	220,581 (100)
1992	10,144 (6.3)	19,324 (12.0)	76,753 (47.5)	55,343 (34.3)	-125 -	161,439 (100)
1993	19,376 (12.8)	3,616 (2.4)	69,387 (45.8)	57,338 (37.9)	1,632 (1.1)	151,349 (100)
1994	14,509 (11.8)	7,446 (6.1)	53,722 (43.9)	45,048 (36.8)	1,716 (1.4)	122,441 (100)
1995	5,372 (7.8)	-9,852 -	36,337 (52.5)	36,368 (52.6)	947 (1.4)	69,172 (100)
1996	4,861 (10.0)	-18,607 -	33,151 (68.2)	28,466 (58.6)	710 (1.5)	48,581 (100)
1997	-1,313 -	-10,574 -	30,019 (50.2)	40,977 (68.5)	735 (1.2)	59,844 (100)
1998	-5,353 -	-17,888 -	4,187 (45.1)	29,133 (313.7)	-793 -	8,286 (100)
1999	3,884 (4.1)	4,843 (5.1)	32,985 (34.8)	52,320 (55.2)	790 (0.8)	94,822 (100)
2000	9,985 (6.6)	16,898 (11.2)	50,244 (33.4)	70,859 (47.2)	2,266 (1.5)	150,252 (100)
2001	9,267 (6.8)	20,074 (14.7)	37,379 (27.5)	67,760 (49.8)	1,635 (1.2)	136,115 (100)
2002	15,432 (7.4)	32,296 (15.4)	85,025 (40.6)	75,414 (36.0)	1,424 (0.7)	209,591 (100)
2003	12,372 (9.0)	14,212 (10.4)	43,223 (31.6)	65,226 (47.6)	1,871 (1.4)	136,904 (100)
1990-2003 계	160,308 (8.7)	148,424 (8.0)	762,452 (41.3)	762,805 (41.3)	12,592 (0.7)	1,846,581 (10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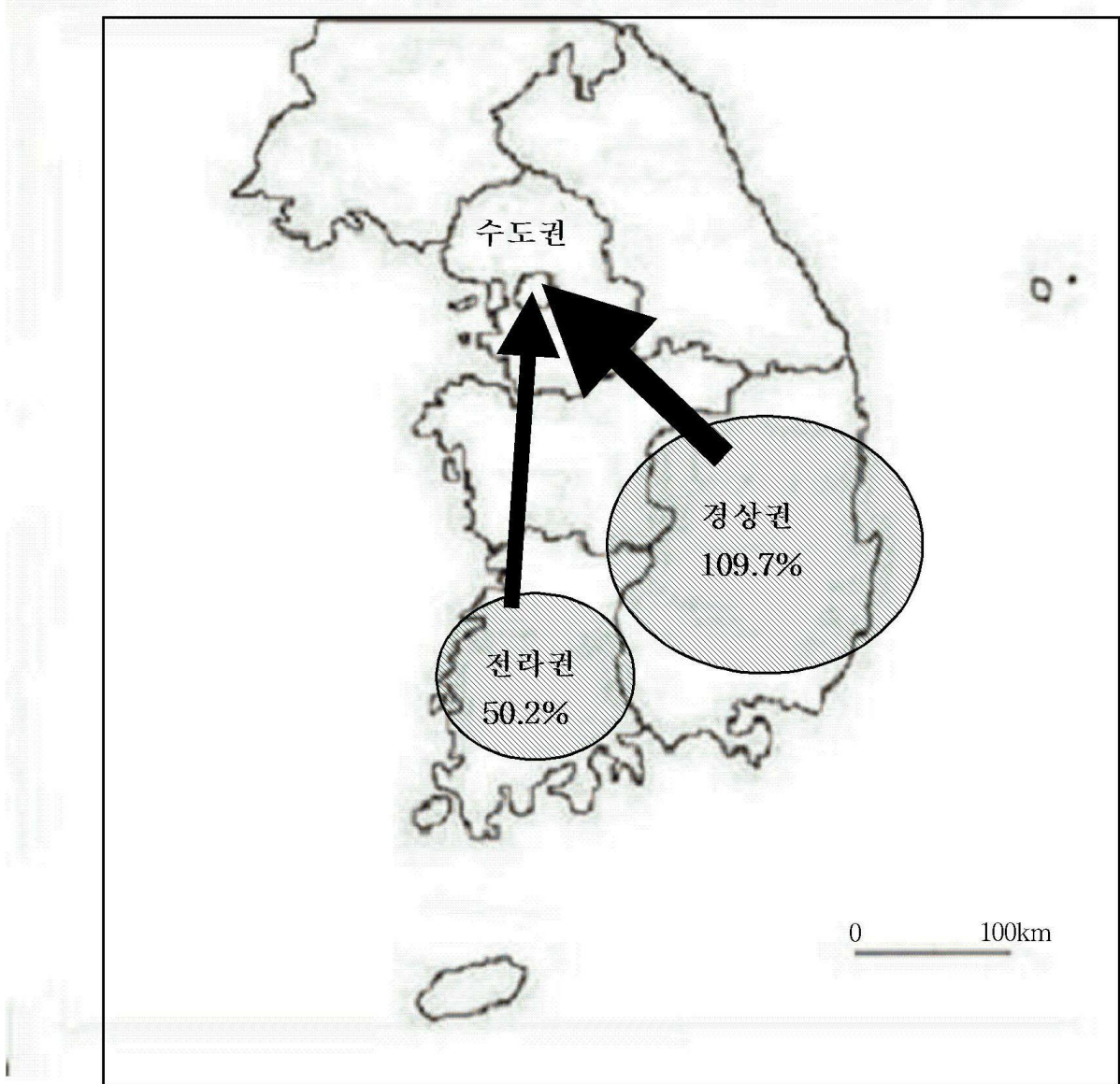
1990년에는 전라권이 41.1%로 전라권 인구가 제일 많이 수도권으로 순전입 되었다. 다음으로 경상권이 27.3%로 전라도 보다는 못 미치지만 많은 순전입률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전라권이 50%이상을 넘었고 또한 경상권도 수도권으로의 순전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점차 증가하더니 전라권은 1996년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2003년에는 31.6%를 차지하였다. 경상권은 1995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최고의 순전입률을 보이더니 점차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의 수도권으로 순전입 인구는 전라권과 경상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차 경상권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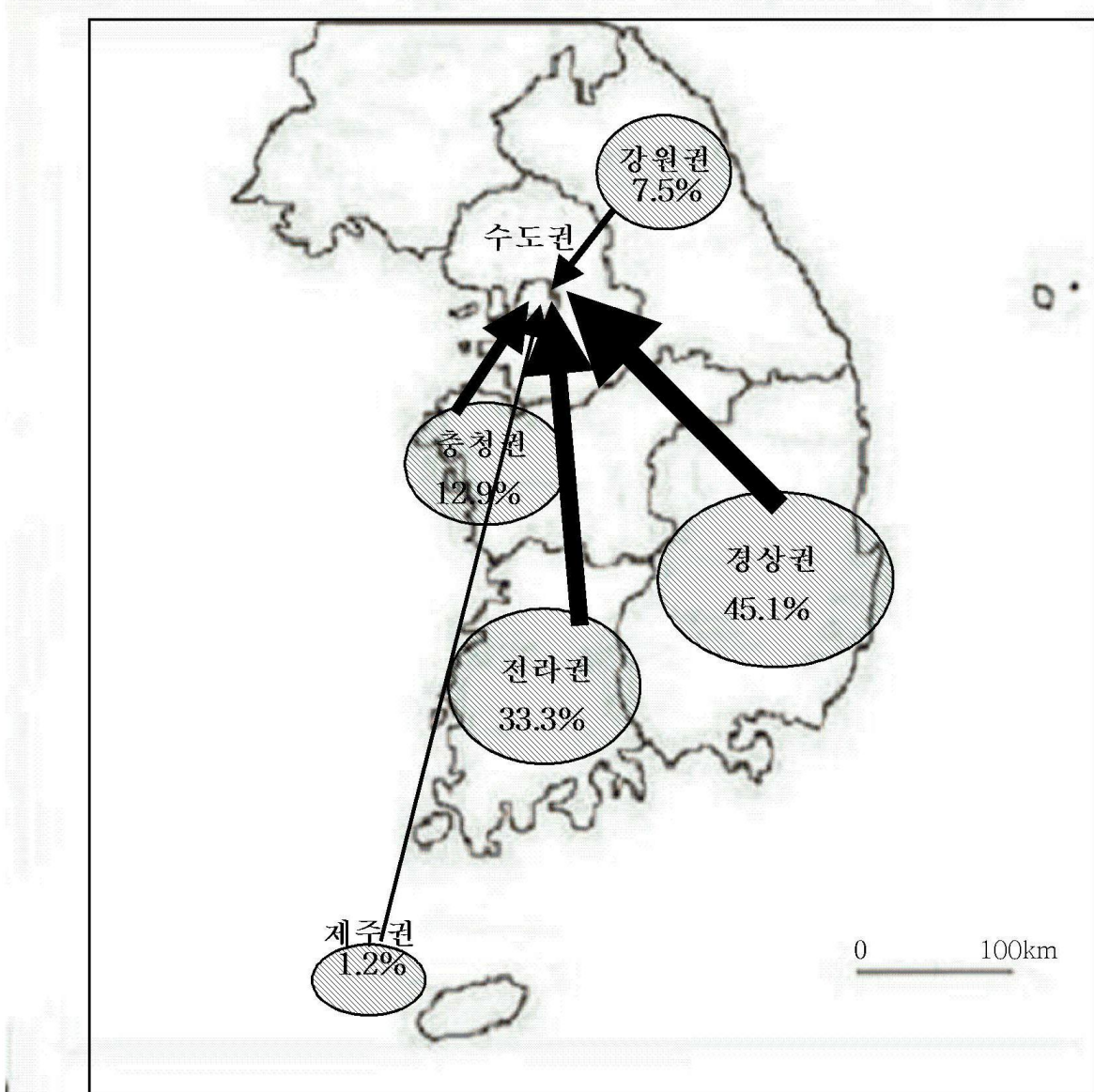
연 단위로 수도권으로 순전입 인구률을 살펴보면 1990년에서 1994년까지는 전라권 44.4%, 경상권 33.0%, 강원권 11.2%, 충청권 11.0%, 제주권 0.5%로 전라권, 경상권이 순전입 인구률이 높게 나타나고, 1995년부터 1999년에는 경상권 109.7%, 전라권 50.2%로 두 권역에서만 수도권 순전입이 나타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의 현상으로 전출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에서 2003까지의 전입률을 살펴보면 경상권 45.1%, 전라권 33.3%, 충청권 12.9%, 강원권 7.5%, 제주권 1.2%로 경상권에서의 순전입률이 점차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9, 10〉



〈그림 8〉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 1990-1994



<그림 9>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 1995-1999



〈그림 10〉 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입, 2000-2003

3. 수도권외 교외화 현상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의 서울로의 순전입이 훨씬 많은 규모로 일관되어 왔으나, 인구이동패턴은 197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1970년 이후 서울로부터 경기도로의 순전입 인구가 평균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⁷⁾ 수도권지역의 순전입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는 276,204명의 전입초과현상을 보이거나 서울지역은 90,992명이 전출되고, 경기지역으로 250,511명 인천지역으로 116,685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에는 136,904명이 수도권으로 전입되었지만 서울에서는 68,968명이 인천지역에서 136,904명이 전출하였고, 경기지역은 222,043명이 순전입 현상이 나타난다. <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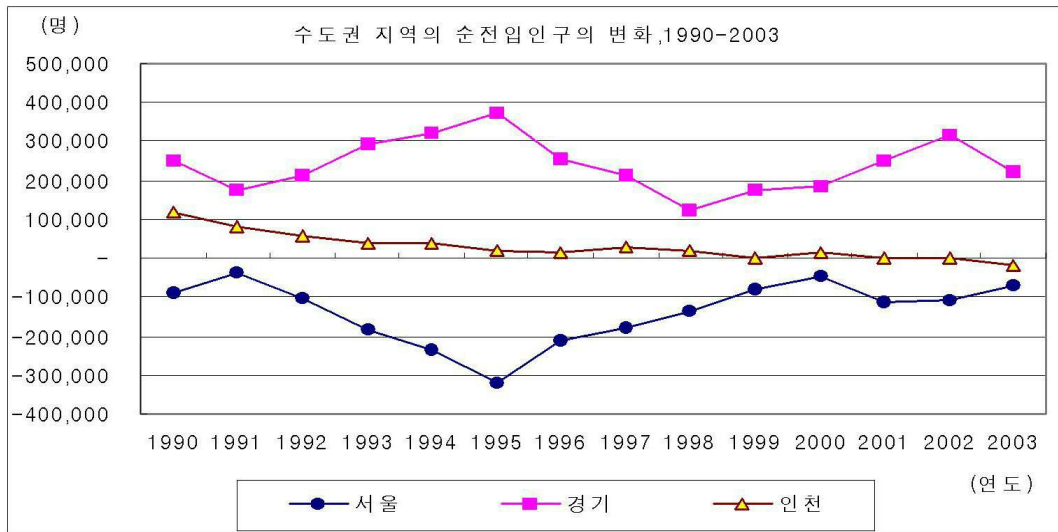
<표 9>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의 변화, 1990-2003

(단위: 명)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1990	-90,992	250,511	116,685	276,204
1991	-36,879	177,062	80,398	220,581
1992	-104,884	214,871	59,381	169,368
1993	-182,632	294,498	39,663	151,529
1994	-236,497	322,077	36,861	122,441
1995	-321,898	372,514	18,556	69,172
1996	-211,237	252,669	12,338	53,770
1997	-178,319	213,748	27,040	62,469
1998	-134,013	122,488	20,811	9,286
1999	-81,122	174,134	1,810	94,822
2000	-46,939	184,026	13,165	150,252
2001	-113,949	248,947	1,117	136,115
2002	-106,421	315,782	230	209,591
2003	-68,968	222,043	-16,171	136,904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7) 권용우 · 이자원, 2000, “우리나라 인구이동의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34(3)



〈그림 11〉 수도권지역의 순전입 인구의 변화, 1990-2003

자료 : 〈표 9〉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 순전입 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전출률을 살펴보면 1990년과 1991년에는 약 60%가 순전출하였는데 1992년도부터는 100%를 증가하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순전출률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수도권의 순전입은 9,286명이 순전입하였으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수는 130,365명으로 14배 이상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2003년에는 수도권 순전입중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전출 인구수는 96.8%로 나타난다.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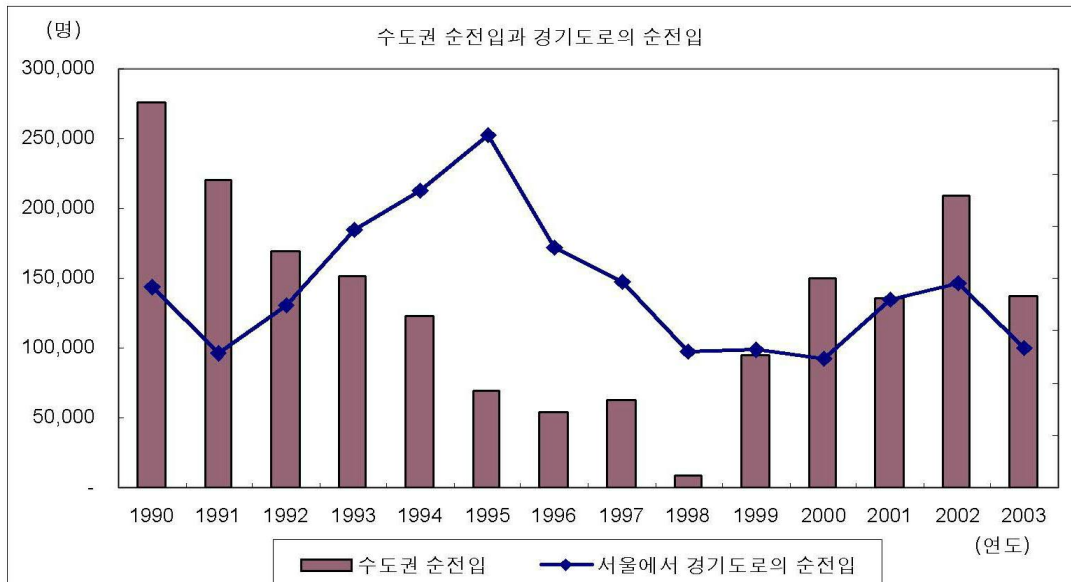
경기지역으로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전입초과를 보이는 것은 신도시 개발이후 쾌적한 환경과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서울로부터 서울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은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에서 2003년의 기간 중 수도권 전입자의 서울 분담률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지역으로의 전입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로 집중되던 수도권 전입이 인천, 경기지역으로 반전되는 교외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지역으로의 인구

이입이 수도권 유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10〉 수도권 순전입과 서울에서의 경기도로의 순전출, 1990-2003
(단위: 명)

	수도권 순전입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순전출(%)
1990	276,204	190,975 (69.1)
1991	220,581	128,444 (58.2)
1992	169,368	174,739 (103.2)
1993	151,529	246,535 (162.7)
1994	122,441	283,307 (231.4)
1995	69,172	336,518 (486.5)
1996	53,770	229,906 (427.6)
1997	62,469	197,148 (315.6)
1998	9,286	130,365 (1,403.9)
1999	94,822	131,188 (138.4)
2000	150,252	122,957 (81.8)
2001	136,115	179,837 (132.1)
2002	209,591	195,375 (93.2)
2003	136,904	132,591 (96.8)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12〉 수도권 순전입과 경기도로의 순전입, 1990-2003

자료: 〈표 10〉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 지역 내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의 총전출자 중 대부분은 경기도로 이주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천으로 이입하였다. 인천의 전출자는 경기와 서울로의 전출이 주류를 이루며, 경기도는 서울, 인천, 충남의 순으로 전출자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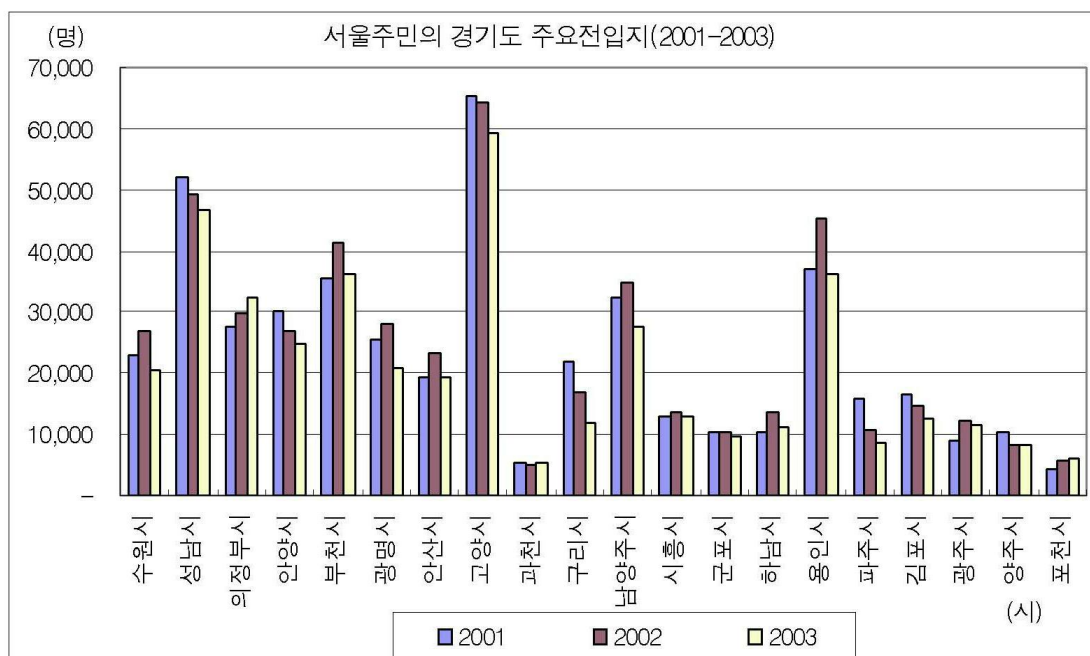
특히 서울시 주변지역에 여러개의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신규 아파트가 대거 개발되어 서울과 인천의 많은 전출자들을 이입시킨데 큰 몫을 했다. 서울로부터 전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로의 전출이 많다. 기존의 5개 주택신도시의 서울인구 전출은 1996년 이후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남·부천·안양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신규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남양주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는 1996년 이후 계속 서울로부터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서울로부터 전출자가 2002년에 4만5천명이 이입되어 전년도 보다 8천명이 증가했다. <표 11>

서울로의 전입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인천·경기 지역으로 전입초과가 지속되는 것은 서울의 광역화와 교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주변의 과천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 및 읍급 도시의 활발한 성장에 힘입어 전출입증가율이 다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표 11〉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 전입지, 2001-2003
(단위: 명)

	2001	2002	2003
수원시	22,906	27,071	20,511
성남시	52,196	49,358	46,741
의정부시	27,561	29,947	32,342
안양시	30,184	27,027	24,603
부천시	35,368	41,283	36,136
광명시	25,430	28,097	20,970
안산시	19,246	23,418	19,389
고양시	65,319	64,340	59,058
과천시	5,444	5,172	5,236
구리시	21,943	17,044	11,916
남양주시	32,438	34,810	27,697
시흥시	12,924	13,532	12,942
군포시	10,367	10,245	9,612
하남시	10,467	13,770	11,273
용인시	36,912	45,210	36,134
파주시	15,891	10,827	8,526
김포시	16,499	14,883	12,575
광주시	8,990	12,204	11,540
양주시	10,311	8,277	8,206
포천시	4,414	5,860	5,961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2001-2003



〈그림 13〉 서울주민의 경기도 주요 전입지(2001-2003)

자료: 〈표 11〉을 기초로 필자가 작성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교통문제, 오염, 주택부족, 지가상승 등 집적불이익을 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인구 및 경제활동을 대도시로부터 외곽지역으로 배출하게 되지만, 이동인구는 대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대도시에 두고 거주지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수도권 전철화와 시내 연계버스노선의 확대로 통근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직주 분리 현상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또한 주택의 증가나 교통로의 확장은 이 지역의 지가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인구이동은 주택증가와 통근권확대로 인해 거주지 교외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흐름은 크게 단거리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내에서의 교외화 현상으로 집약된다.

Ⅲ. 수도권외의 인구이동

1. 수도권외의 인구규모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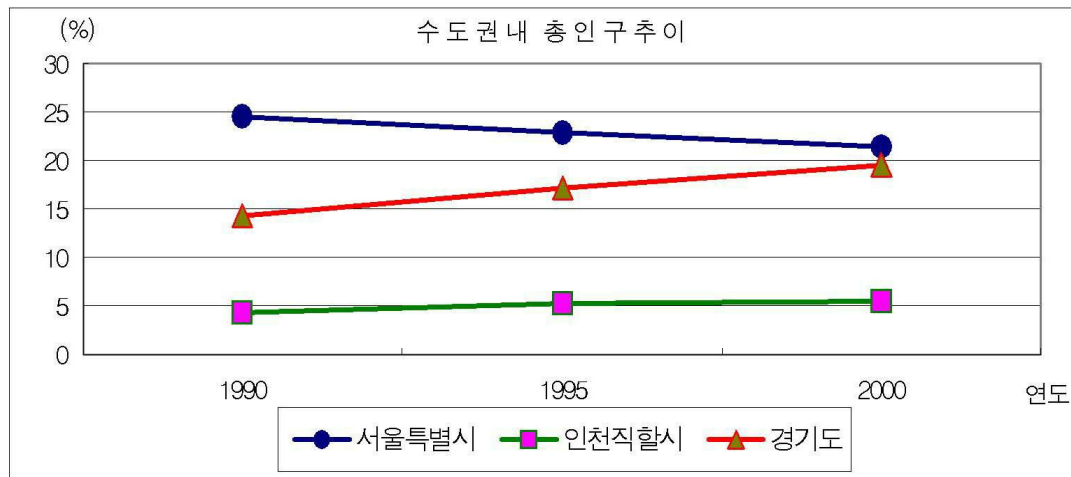
수도권내의 3개의 시·도의 행정구역별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인구 및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수도권내 총인구 추이,1990,1995,2000

(단위: 명, %)

	1990 (%)	1995 (%)	2000 (%)
서울특별시	10,612,577(24.4)	10,231,217(22.9)	9,895,217(21.4)
인천광역시	1,817,919(4.2)	2,308,188(5.2)	2,475,139(5.4)
경기도	6,155,632(14.2)	7,649,741(17.1)	8,984,134(19.5)
수도권	18,586,128(42.8)	20,189,146(45.3)	21,354,490(46.3)
전국	43,410,899(100)	44,608,726(100)	46,136,101(100)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1995,2000



〈그림 14〉 수도권내 총인구 추이,1991,1995,2000

자료 : 〈표 12〉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수도권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1990년도에는 경기도는 14.2% ,서울특별시는 24.4%로 서울특별시가 경

기도 보다 10%이상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서울특별시가 21.4%, 경기도가 19.5% 로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보다 1.9%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까지 도시집중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경기도의 인구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1) 서울특별시의 인구규모 및 변화

서울특별시의 1995년 연평균증가율은 96.4% 감소하고, 2000년도의 연평균증가율은 96.7%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서울특별시의 인구 구성비는 종로구가 24.4%로 종로구로 집중되었지만, 1995년에는 종로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000년 서울특별시를 보면 1995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보인다. 1994년, 1995년의 신설 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화라 볼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8) 이재중, 2002, 수도권 인구이동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13〉 서울특별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단위: 명, %)

행정구역	총인구		총인구		총인구		개편된 행정구역
	1990	(%)	1995	(%)	2,000	(%)	
서울특별시	10,612,577	100.0	10,231,217	100.0	9,895,217	1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243,331	24.4	190,283	1.9	170,118	1.7	종로구
중구	188,118	0.6	135,583	1.3	135,173	1.4	중구
용산구	303,022	0.4	253,841	2.5	231,484	2.3	용산구
성동구	799,039	0.7	334,464	3.3	325,251	3.3	성동구
			382,269	3.7	381,568	3.9	광진구
동대문구	503,394	1.8	415,709	4.1	367,596	3.7	동대문구
중랑구	448,390	1.2	439,931	4.3	440,863	4.5	중랑구
성북구	551,540	1.0	490,310	4.8	460,511	4.7	성북구
			390,046	3.8	340,765	3.4	강북구
도봉구	671,795	1.3	356,037	3.5	352,702	3.6	도봉구
노원구	480,004	1.5	569,392	5.6	606,394	6.1	노원구
은평구	469,891	1.1	485,287	4.7	442,604	4.5	은평구
서대문구	387,089	1.1	359,873	3.5	351,625	3.6	서대문구
마포구	435,630	0.9	386,042	3.8	367,220	3.7	마포구
양천구	490,500	1.0	460,655	4.5	459,643	4.6	양천구
강서구	391,139	1.1	503,063	4.9	504,480	5.1	강서구
구로구	748,072	0.9	365,039	3.6	392,541	4.0	구로구
			284,997	2.8	268,586	2.7	금천구
영등포구	470,109	1.7	413,952	4.0	390,035	3.9	영등포구
동작구	403,724	1.1	422,468	4.1	401,133	4.1	동작구
관악구	574,255	0.9	548,318	5.4	505,036	5.1	관악구
서초구	395,699	1.3	384,830	3.8	368,339	3.7	서초구
강남구	491,062	0.9	534,724	5.2	523,350	5.3	강남구
송파구	634,338	1.1	636,845	6.2	633,956	6.4	송파구
강동구	532,436	1.5	487,259	4.8	474,244	4.8	강동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 1995, 2000

주: 1990년의 검은 부분은 인구밀집 구이고, 1995년과 2000년은 5% 이상 된 구이다.

〈표 14〉 인천광역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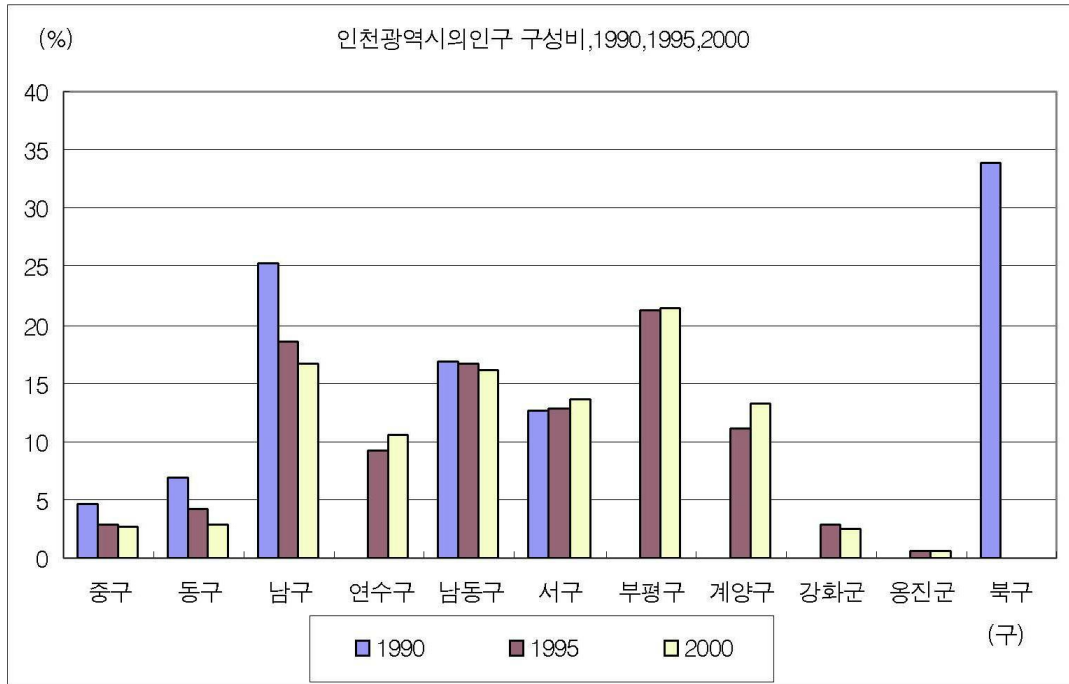
(단위: 명, %)

행정구역	1990	(%)	1995	(%)	2000	(%)	개편된
인천광역시	1,817,919	100	2,308,188	100	2,475,139	100	행정구역
중구	81,603	4.5	68,082	2.9	66,642	2.7	중구
동구	124,276	6.8	100,240	4.3	72,989	2.9	동구
남구	457,883	25.2	425,887	18.5	409,945	16.6	남구
			212,632	9.2	260,289	10.5	연수구
남동구	307,066	16.9	383,267	16.6	397,491	16.1	남동구
서구	230,273	12.7	294,304	12.8	337,518	13.6	서구
북구	616,818	33.9	489,621	21.2	529,569	21.4	부평구
			256,785	11.1	327,020	13.2	계양구
			64,746	2.8	60,368	2.4	강화군
			12,624	0.5	13,308	0.5	옹진군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1990,1995,2000

주: 1990년의 북구는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행정구역 개편

주 : 검은 부분은 20% 이상인 구이다.



〈그림16〉 인천광역시의 인구수 및 구성비,1990,1995,2000

자료 : 〈표 14〉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3) 경기도의 인구 규모와 변화

경기도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및 인구구성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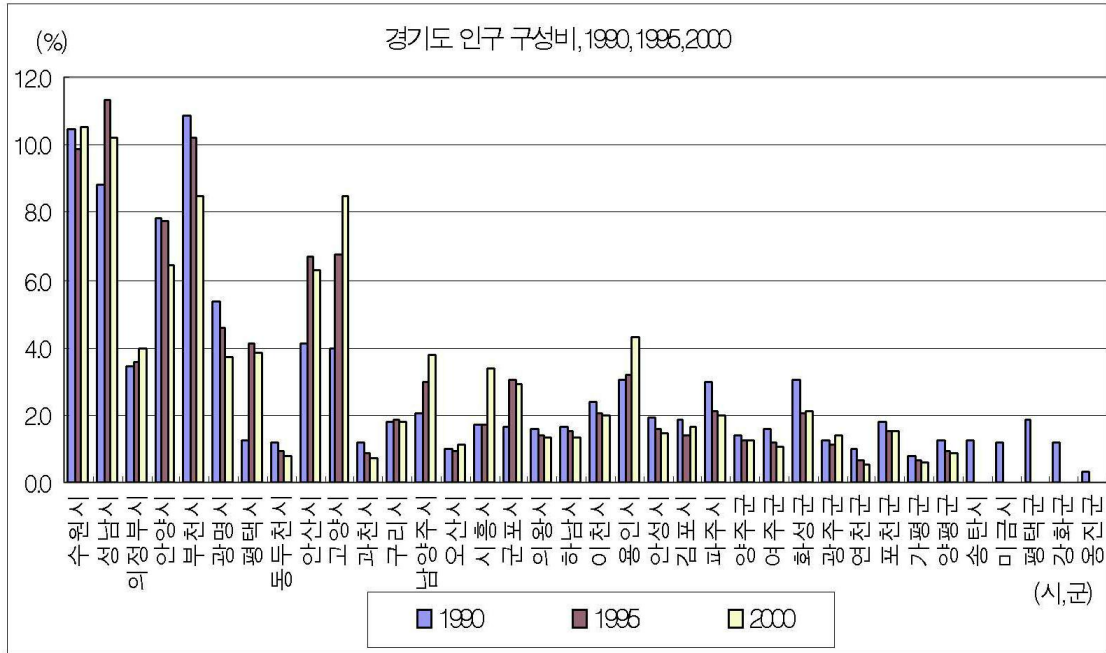
〈표 15〉 경기도의 인구수 및 구성비, 1990, 1995, 2000

(단위: 명, %)

	1990	(%)		1995	(%)		2000	(%)
경기도	6,155,632	100	경기도	7,649,741	100	경기도	8,984,134	100
수원시	644,805	10.5	수원시	755,550	9.9	수원시	946,704	10.5
성남시	540,754	8.8	성남시	869,094	11.4	성남시	914,590	10.2
의정부시	212,352	3.4	의정부시	276,111	3.6	의정부시	355,380	4.0
안양시	481,291	7.8	안양시	591,106	7.7	안양시	580,544	6.5
부천시	667,993	10.9	부천시	779,412	10.2	부천시	761,389	8.5
광명시	328,593	5.3	광명시	350,914	4.6	광명시	334,089	3.7
평택시	79,152	1.3	평택시	312,927	4.1	평택시	345,306	3.8
동두천시	71,449	1.2	동두천시	71,579	0.9	동두천시	73,502	0.8
안산시	252,418	4.1	안산시	510,314	6.7	안산시	562,920	6.3
고양군	244,975	4.0	고양시	518,282	6.8	고양시	763,971	8.5
과천시	72,353	1.2	과천시	68,077	0.9	과천시	66,706	0.7
구리시	109,374	1.8	구리시	142,173	1.9	구리시	160,839	1.8
남양주군	125,617	2.0	남양주시	229,060	3.0	남양주시	340,932	3.8
오산시	59,482	1.0	오산시	70,488	0.9	오산시	102,697	1.1
시흥시	107,176	1.7	시흥시	133,443	1.7	시흥시	305,268	3.4
군포시	100,059	1.6	군포시	235,233	3.1	군포시	263,760	2.9
의왕시	96,892	1.6	의왕시	108,788	1.4	의왕시	117,821	1.3
하남시	101,325	1.6	하남시	115,812	1.5	하남시	120,513	1.3
이천군	148,719	2.4	이천군	155,332	2.0	이천시	179,719	2.0
용인군	187,993	3.1	용인군	242,643	3.2	용인시	386,124	4.3
안성군	118,285	1.9	안성군	120,133	1.6	안성시	133,421	1.5
김포군	114,583	1.9	김포군	107,684	1.4	김포시	150,194	1.7
파주군	185,028	3.0	파주군	163,379	2.1	파주시	178,434	2.0
양주군	84,672	1.4	양주군	94,507	1.2	양주군	110,299	1.2
여주군	96,895	1.6	여주군	92,050	1.2	여주군	97,612	1.1
화성군	187,370	3.0	화성군	158,590	2.1	화성군	189,467	2.1
광주군	76,593	1.2	광주군	86,156	1.1	광주군	125,943	1.4
연천군	61,287	1.0	연천군	52,116	0.7	연천군	49,483	0.6
포천군	110,958	1.8	포천군	118,558	1.5	포천군	138,654	1.5
가평군	50,957	0.8	가평군	49,627	0.6	가평군	52,147	0.6
양평군	77,166	1.3	양평군	70,603	0.9	양평군	75,706	0.8
송탄시	77,445	1.3						
미금시	74,695	1.2						
평택군	115,229	1.9						
강화군	71,612	1.2						
용진군	20,085	0.3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 1995, 2000

주: 검은부분은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17〉 경기도의 인구수 및 구성비, 1990, 1995, 2000

자료 : 〈표 15〉 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경기도의 경우 전체 인구수는 1990년에 6,155,632명에서 1995년 7,649,741명 2000년에는 8,984,134명으로 1995년의 연평균증가율은 24.3%, 2000년에는 17.4% 로 계속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시와 성남시(분당),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고양시(일산), 군포시(산본)의 5개 신도시는 높은 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시흥시, 용인시는 2000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1995년에 3.0% 2000년에는 3.8%이고 시흥시는 1995년에 1.7% 2000년 3.4%로 2배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또한 1995년 3.2%에서 2000년에는 4.3%로 나타났다. 〈표 15〉

이는 5개 신도시 외곽으로 점점 더 교외화가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교외화가 더욱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1) 서울특별시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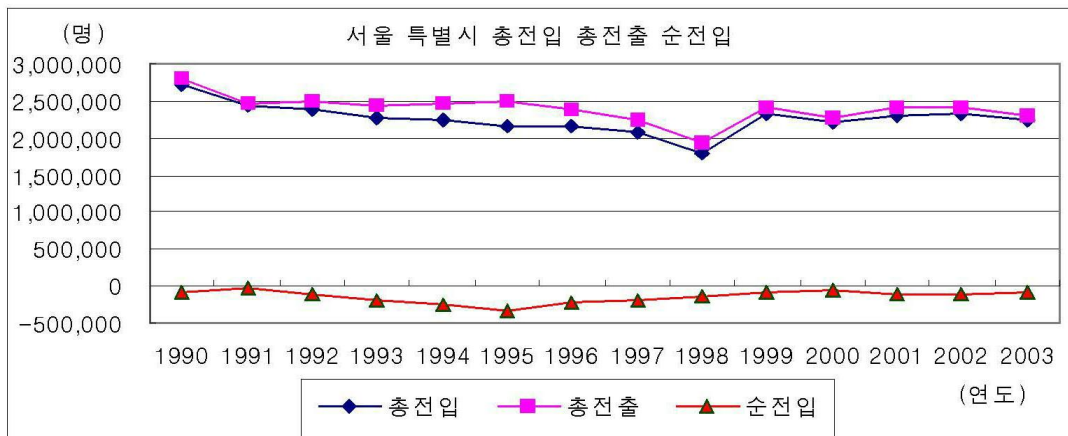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전반적인 인구 전입 및 전출패턴은 살펴보면, 순전입은 부(-)로 전출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최대로 321,898명이 서울로부터 빠져나갔고, 이후 예도 꾸준한 감소세에서 2000년에는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68,968명이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표 16>

<표 16> 서울특별시의 순전입, 1990-2003

(단위: 명)

시점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
1990	2,726,492	2,817,484	-90,992
1991	2,437,238	2,474,117	-36,879
1992	2,395,814	2,500,698	-104,884
1993	2,259,333	2,441,965	-182,632
1994	2,240,086	2,476,583	-236,497
1995	2,165,332	2,487,230	-321,898
1996	2,159,555	2,370,792	-211,237
1997	2,074,884	2,253,203	-178,319
1998	1,802,931	1,936,944	-134,013
1999	2,337,989	2,419,111	-81,122
2000	2,219,407	2,266,346	-46,939
2001	2,295,784	2,409,733	-113,949
2002	2,318,051	2,424,472	-106,421
2003	2,242,723	2,311,691	-68,968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18> 서울특별시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 1990-2003

2) 인천광역시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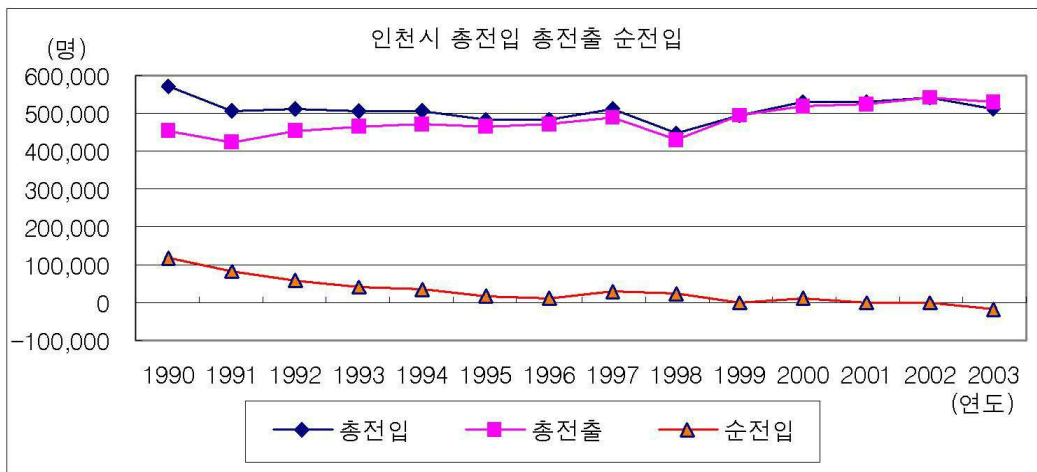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경우 1990년에는 116,685명이 순전입 되었으나,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1997년에 27,040명이 1998년에는 20,811명이 순전입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230명이 전입하더니 2003년에는 16,171명이 전출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표 17> 인천광역시의 순전입,1990-2003

(단위: 명)

시점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
1990	567,863	451,178	116,685
1991	503,687	423,289	80,398
1992	509,700	450,319	59,381
1993	505,825	466,162	39,663
1994	506,471	469,610	36,861
1995	481,438	462,882	18,556
1996	482,811	470,473	12,338
1997	512,513	485,473	27,040
1998	447,707	426,896	20,811
1999	494,576	492,766	1,810
2000	531,318	518,153	13,165
2001	526,842	525,725	1,117
2002	540,812	540,582	230
2003	510,347	526,518	-16,171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19> 인천광역시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1990-2003

3) 경기도의 인구이동 특성 및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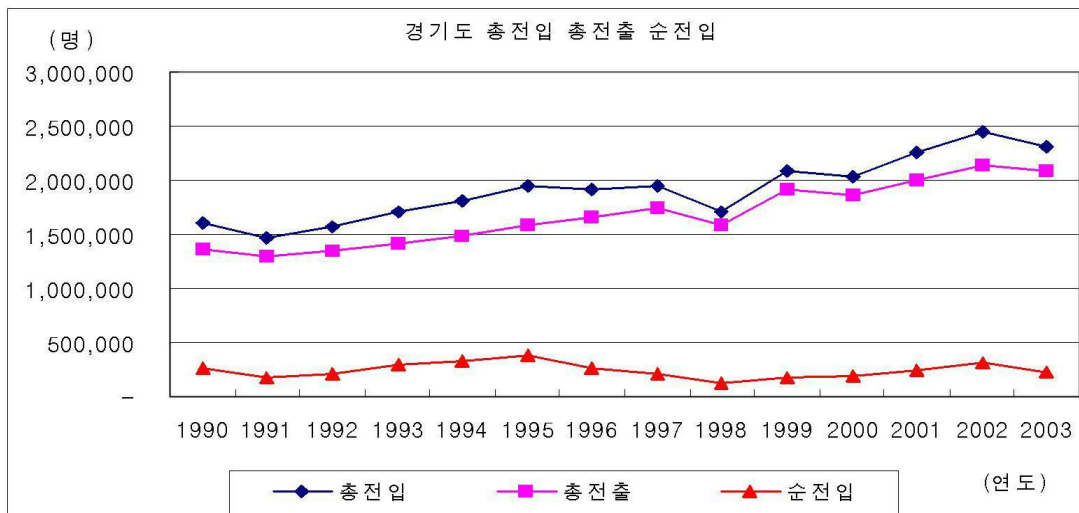
경기도의 경우 1990년에는 250,511명이 순전입 되고, 1994년과 1995년에는 35만 명이 넘어섰다. 신도시가 완료된 199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면서 1998년 영향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1999년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다시 30만 명이 순전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8>

<표 18> 경기도의 순전입, 1990-2003

(단위: 명)

시점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
1990	1,609,933	1,359,422	250,511
1991	1,472,190	1,295,128	177,062
1992	1,564,272	1,349,401	214,871
1993	1,711,603	1,417,105	294,498
1994	1,807,997	1,485,920	322,077
1995	1,952,466	1,579,952	372,514
1996	1,905,357	1,652,688	252,669
1997	1,950,705	1,736,957	213,748
1998	1,707,411	1,584,923	122,488
1999	2,079,470	1,905,336	174,134
2000	2,042,327	1,858,301	184,026
2001	2,256,103	2,007,156	248,947
2002	2,449,422	2,133,640	315,782
2003	2,304,535	2,082,492	222,043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그림 20> 경기도의 총전입, 총전출, 순전입, 1990-2003

3. 전입·전출지의 인구 이동 현황

1)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지

서울시의 전입·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서울시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 1995-2003 (단위: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서울	2,165,332	(%)	2,159,555	(%)	2,074,884	(%)	1,802,931	(%)	2,337,989	(%)
서울	1,603,840	74.1	1,571,154	72.8	1,485,450	71.6	1,256,643	69.7	1,668,474	71.4
부산	25,525	1.2	24,721	1.1	24,872	1.2	23,220	1.3	27,100	1.2
대구	14,137	0.7	14,456	0.7	14,410	0.7	13,888	0.8	16,322	0.7
인천	41,601	1.9	43,084	2.0	40,885	2.0	38,404	2.1	48,592	2.1
광주	15,758	0.7	15,711	0.7	15,642	0.8	13,979	0.8	17,481	0.7
대전	14,575	0.7	15,097	0.7	15,538	0.7	14,539	0.8	17,672	0.8
울산	-	-	-	-	5,394	0.3	5,666	0.3	6,297	0.3
경기	262,893	12.1	290,660	13.5	298,306	14.4	276,685	15.3	340,653	14.6
강원	25,677	1.2	26,588	1.2	25,443	1.2	24,182	1.3	28,384	1.2
충북	17,155	0.8	16,900	0.8	17,095	0.8	16,073	0.9	18,923	0.8
충남	26,635	1.2	26,741	1.2	26,488	1.3	24,143	1.3	28,912	1.2
전북	31,316	1.4	30,612	1.4	29,462	1.4	26,167	1.5	31,789	1.4
전남	36,069	1.7	33,520	1.6	31,291	1.5	27,762	1.5	37,648	1.6
경북	21,871	1.0	21,493	1.0	20,966	1.0	19,243	1.1	23,112	1.0
경남	22,504	1.0	22,748	1.1	17,468	0.8	16,292	0.9	19,641	0.8
제주	5,776	0.3	6,070	0.3	6,174	0.3	6,045	0.3	6,989	0.3

	2000		2001		2002		2003	
서울	2,219,407	(%)	2,295,784	(%)	2,318,051	(%)	2,242,723	(%)
서울	1,582,429	71.3	1,658,076	72.2	1,672,647	72.2	1,609,693	71.8
부산	28,564	1.3	28,366	1.2	28,049	1.2	26,569	1.2
대구	16,970	0.8	16,841	0.7	16,781	0.7	15,963	0.7
인천	45,970	2.1	46,213	2.0	45,171	1.9	43,145	1.9
광주	17,894	0.8	17,164	0.7	17,593	0.8	17,513	0.8
대전	18,698	0.8	17,689	0.8	18,307	0.8	17,436	0.8
울산	6,129	0.3	6,430	0.3	6,568	0.3	6,601	0.3
경기	312,616	14.1	319,738	13.9	321,390	13.9	325,065	14.5
강원	27,874	1.3	27,310	1.2	27,914	1.2	27,149	1.2
충북	18,321	0.8	17,606	0.8	17,878	0.8	16,891	0.8
충남	27,407	1.2	26,604	1.2	26,741	1.2	26,186	1.2
전북	32,637	1.5	32,590	1.4	37,966	1.6	30,071	1.3
전남	33,517	1.5	33,062	1.4	30,672	1.3	30,501	1.4
경북	23,599	1.1	22,542	1.0	24,290	1.0	23,030	1.0
경남	20,015	0.9	19,282	0.8	19,592	0.8	20,269	0.9
제주	6,767	0.3	6,271	0.3	6,492	0.3	6,641	0.3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주 : 검은부분은 수도권 지역이다.

〈표 19〉와 같이 서울시의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출별 인구이동현황을 보면, 시내 이동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95년에 12.1%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1998년에는 15.3%로 이를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14.5%로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경기도와 유사하게 1995년에는 1.9%에서 1998년에는 2%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1.9%를 보이고 있다.

〈표20-1〉 서울특별시의 전입지별 인구이동현황,1995-1999

(단위: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서울	2,487,230	(%)	2,370,792	(%)	2,253,203	(%)	1,936,944	(%)	2,419,111	(%)
서울	1,603,840	64.5	1,571,154	66.3	1,485,450	65.9	1,256,643	64.9	1,668,474	69.0
부산	17,424	0.7	18,460	0.8	17,087	0.8	16,839	0.9	17,733	0.7
대구	11,352	0.5	11,418	0.5	10,648	0.5	10,383	0.5	11,031	0.5
인천	62,695	2.5	58,631	2.5	60,814	2.7	53,946	2.8	54,143	2.2
광주	13,758	0.6	13,401	0.6	13,518	0.6	13,351	0.7	13,429	0.6
대전	18,989	0.8	18,310	0.8	16,685	0.7	19,470	1.0	17,463	0.7
울산	-	-	-	-	4,545	0.2	4,413	0.2	4,563	0.2
경기	599,411	24.1	520,566	22.0	495,454	22.0	407,050	21.0	471,841	19.5
강원	24,987	1.0	25,221	1.1	25,178	1.1	25,840	1.3	25,741	1.1
충북	18,710	0.8	18,231	0.8	17,998	0.8	16,948	0.9	17,334	0.7
충남	26,501	1.1	27,159	1.1	27,395	1.2	25,928	1.3	26,726	1.1
전북	23,837	1.0	23,078	1.0	22,032	1.0	24,307	1.3	25,007	1.0
전남	24,100	1.0	23,790	1.0	22,773	1.0	26,176	1.4	29,161	1.2
경북	17,064	0.7	16,899	0.7	15,271	0.7	16,103	0.8	16,604	0.7
경남	19,306	0.8	19,061	0.8	12,855	0.6	13,340	0.7	13,690	0.6
제주	5,256	0.2	5,413	0.2	5,500	0.2	6,207	0.3	6,171	0.3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0-2003

주 : 검은부분은 수도권 지역이다.

〈표20-2〉 서울특별시의 전입지별 인구이동현황,2000-2003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서울	2,266,346	(%)	2,409,733	(%)	2,424,472	(%)	2,311,691	(%)
서울	1,582,429	69.8	1,658,076	68.8	1,672,647	69.0	1,609,693	69.6
부산	15,968	0.7	16,128	0.7	16,732	0.7	16,368	0.7
대구	9,986	0.4	9,363	0.4	9,077	0.4	10,094	0.4
인천	52,829	2.3	52,865	2.2	55,500	2.3	44,987	1.9
광주	11,579	0.5	11,266	0.5	10,947	0.5	10,525	0.5
대전	16,154	0.7	15,163	0.6	14,727	0.6	15,557	0.7
울산	4,105	0.2	4,266	0.2	4,085	0.2	4,456	0.2
경기	435,573	19.2	499,575	20.7	516,765	21.3	457,656	19.8
강원	22,832	1.0	22,941	1.0	21,582	0.9	21,696	0.9
충북	14,934	0.7	14,518	0.6	13,838	0.6	13,478	0.6
충남	23,083	1.0	22,056	0.9	21,155	0.9	24,942	1.1
전북	22,390	1.0	29,470	1.2	17,619	0.7	28,584	1.2
전남	22,969	1.0	22,457	0.9	18,179	0.7	20,432	0.9
경북	14,576	0.6	14,303	0.6	13,762	0.6	13,938	0.6
경남	11,741	0.5	12,100	0.5	12,290	0.5	13,827	0.6
제주	5,198	0.2	5,186	0.2	5,567	0.2	5,458	0.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수도권 지역이다.

〈표 20〉 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전입지별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시내 인구이동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늘어나는 추세에서 1997년에서 1998년에 약간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1999년대부터 2003년까지 1997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시내 인구이동을 제외하면 경기도로 20%를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으며, 약간의 감소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시·도의 경우 2003년에 전북과 충남 등이 1%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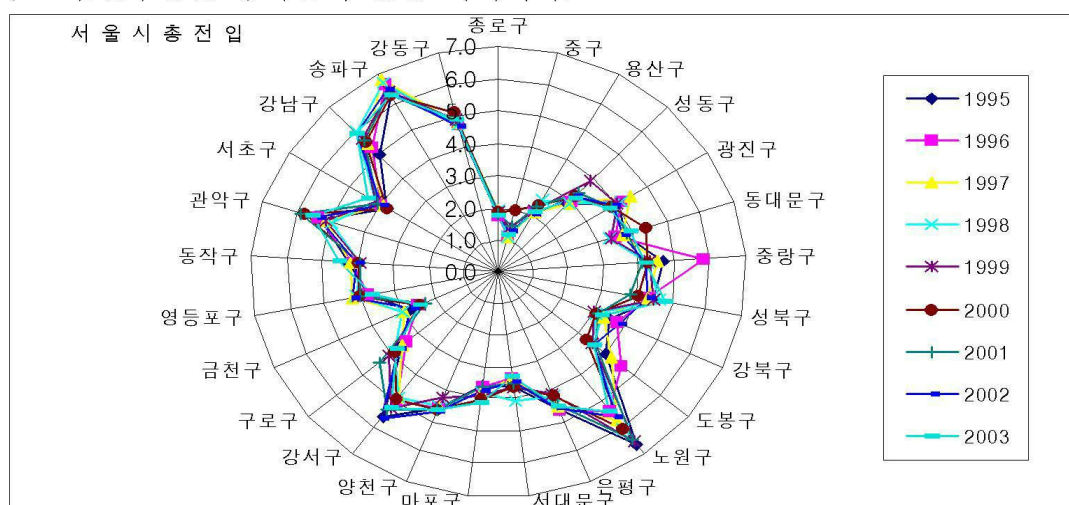
〈표 21〉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입률,1995-2003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종로구	1.8	1.8	1.9	1.9	1.9	1.9	1.8	1.8	1.7
중구	1.2	1.2	1.1	1.1	1.4	1.9	1.4	1.3	1.2
용산구	2.1	2.1	2.1	2.6	2.2	2.4	2.3	2.0	2.1
성동구	2.9	3.0	2.9	2.9	3.9	3.2	3.4	3.2	3.1
광진구	4.0	4.1	4.4	4.1	4.0	3.8	3.8	3.8	3.7
동대문구	3.7	3.5	3.7	3.3	3.4	4.4	3.8	3.7	4.0
중랑구	4.7	5.8	4.5	4.3	4.3	4.2	4.1	4.2	4.2
성북구	4.5	4.3	4.3	4.7	4.5	4.0	3.8	4.3	4.8
강북구	3.5	3.7	3.3	3.0	3.0	3.1	3.1	3.8	3.2
도봉구	4.0	4.6	4.2	3.5	3.5	3.3	3.6	3.5	3.5
노원구	6.6	5.4	5.7	6.0	6.5	6.0	6.4	5.6	5.4
은평구	4.6	4.6	4.5	4.2	4.1	4.2	4.5	4.6	4.5
서대문구	3.6	3.3	3.3	4.1	3.6	3.6	3.5	3.4	3.3
마포구	3.5	3.6	3.8	3.8	3.9	4.0	3.6	3.7	4.1
양천구	4.5	4.6	4.5	4.5	4.2	4.6	4.6	4.6	4.6
강서구	5.5	4.9	4.8	4.8	5.2	4.9	5.3	5.6	5.2
구로구	3.5	3.4	3.5	3.9	4.1	3.9	4.4	3.7	3.7
금천구	2.8	2.5	2.9	3.0	2.5	2.4	2.3	2.7	2.5
영등포구	3.8	3.7	4.2	4.1	4.0	4.0	3.9	4.2	3.6
동작구	4.2	4.1	4.2	3.9	3.9	4.0	3.9	4.0	4.5
관악구	5.3	5.4	5.1	5.0	5.2	5.7	5.9	5.4	5.6
서초구	3.7	3.9	3.9	4.1	4.1	3.7	4.0	3.9	4.4
강남구	5.0	5.3	5.4	5.9	5.6	5.5	5.6	5.9	5.9
송파구	6.3	6.6	6.9	6.7	6.4	6.3	6.3	6.4	6.3
강동구	4.8	4.7	4.7	4.7	4.9	5.1	4.7	4.6	4.9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1〉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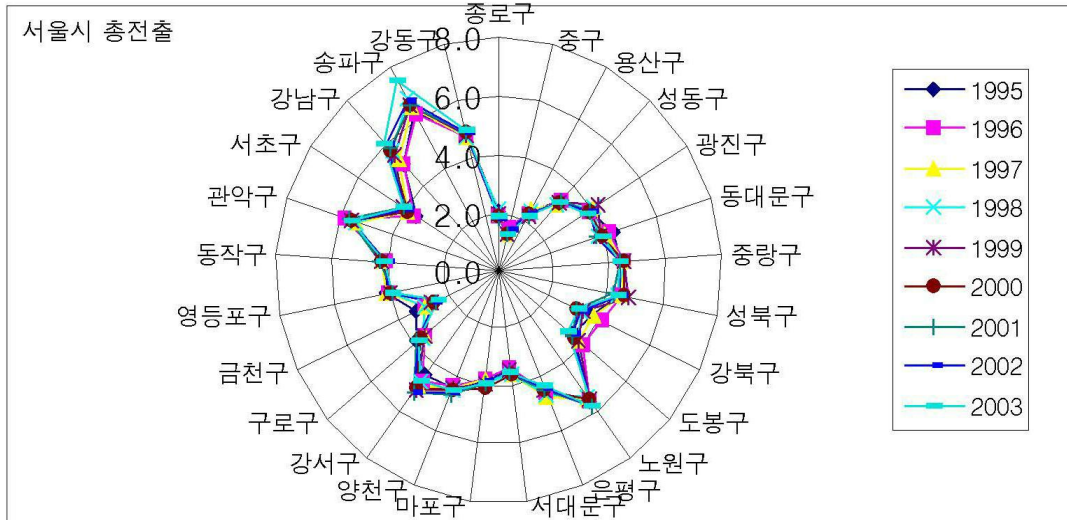
〈표 21〉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서울시내의 전입률을 살펴보면 노원구와 송파구로의 전입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5% 이상의 전입률을 나타내는 구는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에는 중랑구로의 전입이 5.8%로 증가하고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22〉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출률, 1995-2003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종로구	2.0	1.9	1.9	2.1	1.9	1.9	1.8	1.8	1.8
중구	1.6	1.6	1.3	1.3	1.2	1.3	1.3	1.5	1.3
용산구	2.3	2.3	2.4	2.4	2.2	2.3	2.2	2.3	2.1
성동구	3.3	3.4	3.1	3.0	3.1	3.2	3.3	3.2	3.2
광진구	3.8	3.9	4.0	4.1	4.2	3.9	3.9	3.9	3.8
동대문구	4.4	4.2	4.0	3.7	3.8	3.9	3.7	3.6	3.9
중랑구	4.4	4.5	4.5	4.5	4.5	4.5	4.4	4.4	4.4
성북구	4.4	4.5	4.5	4.4	4.7	4.6	4.2	4.5	4.4
강북구	3.7	4.1	3.7	3.3	3.3	3.1	3.1	3.3	3.2
도봉구	3.4	3.9	3.8	3.7	3.7	3.5	3.5	3.4	3.3
노원구	5.6	5.6	5.4	5.4	5.5	5.5	5.7	5.7	5.8
은평구	4.5	4.5	4.7	4.6	4.4	4.4	4.4	4.4	4.2
서대문구	3.4	3.3	3.5	3.5	3.4	3.6	3.5	3.5	3.5
마포구	3.8	3.7	3.8	3.9	3.9	4.0	3.8	3.8	3.9
양천구	4.4	4.3	4.4	4.4	4.4	4.4	4.6	4.5	4.4
강서구	4.4	4.7	4.9	4.8	5.0	4.9	5.2	5.2	4.8
구로구	3.8	3.5	3.5	3.5	3.5	3.6	3.8	3.7	3.8
금천구	3.2	2.9	2.9	2.8	2.6	2.6	2.5	2.6	2.4
영등포구	4.1	4.0	4.1	4.0	4.0	4.0	3.9	4.0	3.9
동작구	4.1	4.0	4.2	4.2	4.2	4.2	4.3	4.1	4.1
관악구	5.7	5.8	5.4	5.3	5.5	5.6	5.7	5.5	5.5
서초구	3.5	3.6	3.8	4.0	4.1	3.9	4.1	4.0	4.0
강남구	5.0	4.9	5.2	5.6	5.5	5.6	5.8	5.9	6.0
송파구	6.2	6.2	6.3	6.8	6.5	6.6	6.5	6.6	7.4
강동구	4.9	4.8	4.7	4.7	4.8	4.9	4.9	4.9	5.0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2〉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총전출률, 1995-2003

〈표 22〉 서울시내의 전출률을 살펴보면 전입률과 비슷하게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가 전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3년에는 송파구가 7.4%로 2002년보다 0.8%가 송파구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2) 인천광역시로의 전입지

〈표 23-1〉 인천광역시의 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 1995-1999

(단위: 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인천	481,438	(%)	482,811	(%)	512,513	(%)	447,707	(%)	494,576	(%)
서울	62,695	13.0	58,631	12.1	60,814	11.9	53,946	12.0	54,143	10.9
부산	4,158	0.9	3,836	0.8	3,813	0.7	3,573	0.8	4,028	0.8
대구	1,963	0.4	2,093	0.4	2,033	0.4	1,828	0.4	2,199	0.4
인천	312,087	64.8	317,278	65.7	334,572	65.3	284,347	63.5	320,946	64.9
광주	2,150	0.4	2,325	0.5	2,490	0.5	2,167	0.5	2,388	0.5
대전	2,577	0.5	2,837	0.6	3,038	0.6	2,931	0.7	3,200	0.6
울산	-	-	-	-	1,105	0.2	1,008	0.2	1,172	0.2
경기	56,281	11.7	57,879	12.0	66,514	13.0	63,176	14.1	64,569	13.1
강원	6,101	1.3	5,790	1.2	5,926	1.2	5,259	1.2	6,176	1.2
충북	3,839	0.8	3,709	0.8	3,834	0.7	3,777	0.8	4,293	0.9
충남	8,292	1.7	8,204	1.7	8,471	1.7	7,598	1.7	8,860	1.8
전북	5,031	1.0	5,066	1.0	5,185	1.0	4,661	1.0	5,719	1.2
전남	6,777	1.4	6,301	1.3	6,010	1.2	5,291	1.2	7,903	1.6
경북	4,094	0.9	3,912	0.8	4,359	0.9	3,938	0.9	4,310	0.9
경남	4,475	0.9	4,063	0.8	3,322	0.6	3,179	0.7	3,547	0.7
제주	918	0.2	887	0.2	1,027	0.2	1,028	0.2	1,123	0.2

〈표 23-2〉 인천광역시의 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 2000-2003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명	(%)	명	(%)	명	(%)	명	(%)
인천	531,318		526,842		540,812		510,347	
서울	52,829	9.9	52,865	10.0	55,500	10.3	44,987	8.8
부산	3,882	0.7	3,953	0.8	4,338	0.8	3,749	0.7
대구	2,209	0.4	2,575	0.5	2,528	0.5	2,392	0.5
인천	358,102	67.4	356,963	67.8	359,818	66.5	348,781	68.3
광주	2,736	0.5	2,744	0.5	2,973	0.5	3,021	0.6
대전	3,273	0.6	3,362	0.6	3,383	0.6	3,372	0.7
울산	1,094	0.2	996	0.2	1,177	0.2	1,143	0.2
경기	67,516	12.7	63,017	12.0	66,332	12.3	61,265	12.0
강원	5,956	1.1	6,072	1.2	6,948	1.3	6,400	1.3
충북	3,879	0.7	4,231	0.8	4,283	0.8	3,953	0.8
충남	8,449	1.6	8,136	1.5	9,284	1.7	8,544	1.7
전북	5,587	1.1	6,073	1.2	7,858	1.5	6,587	1.3
전남	6,859	1.3	6,976	1.3	6,673	1.2	6,622	1.3
경북	4,370	0.8	4,522	0.9	4,752	0.9	4,433	0.9
경남	3,526	0.7	3,327	0.6	3,729	0.7	3,843	0.8
제주	1,051	0.2	1,030	0.2	1,236	0.2	1,255	0.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출이 높은 지역이다.

〈표 23〉 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은 시내인구 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1995년에는 64.8%에서 1998년에 63.5%로 떨어졌지만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68.3%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전출률이 13.0%였지만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8.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전출률을 살펴보면 1995년에는 11.7%로 서울보다 적었지만 1998년에는 14%로 최고의 이동률을 보인다. 1998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12%의 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과 전남에서 인천으로의 전출을 보이고 있다.

〈표 24〉 인천광역시의 전입지별 인구 이동 현황, 1995-2003 (단위:명,%)

	2000		2001		2002		2003	
인천	518,153		525,725		540,582		526,518	
서울	45,970	8.9	46,213	8.8	45,171	8.4	43,145	8.2
부산	2,895	0.6	2,920	0.6	3,139	0.6	2,922	0.6
대구	1,806	0.3	1,625	0.3	1,691	0.3	1,670	0.3
인천	358,102	69.1	356,963	67.9	359,818	66.6	348,781	66.2
광주	2,236	0.4	2,202	0.4	2,118	0.4	2,213	0.4
대전	3,515	0.7	3,221	0.6	3,216	0.6	3,196	0.6
울산	1,015	0.2	1,012	0.2	1,015	0.2	1,033	0.2
경기	67,498	13.0	74,456	14.2	90,856	16.8	84,889	16.1
강원	5,512	1.1	5,898	1.1	5,834	1.1	5,950	1.1
충북	4,074	0.8	4,137	0.8	3,748	0.7	3,914	0.7
충남	8,386	1.6	8,200	1.6	8,132	1.5	9,421	1.8
전북	4,658	0.9	5,982	1.1	4,304	0.8	6,507	1.2
전남	5,034	1.0	5,050	1.0	4,137	0.8	4,930	0.9
경북	3,545	0.7	3,420	0.7	3,196	0.6	3,572	0.7
경남	2,888	0.6	3,474	0.7	3,005	0.6	3,199	0.6
제주	1,019	0.2	952	0.2	1,202	0.2	1,176	0.2

	1995		1996		1997		1998		1999	
인천	462,882	(%)	470,473	(%)	485,473	(%)	426,896	(%)	492,766	(%)
서울	41,601	9.0	43,084	9.2	40,885	8.4	38,404	9.0	48,592	9.9
부산	3,117	0.7	3,162	0.7	2,963	0.6	2,895	0.7	3,256	0.7
대구	1,954	0.4	1,794	0.4	1,724	0.4	1,665	0.4	1,942	0.4
인천	312,087	67.4	317,278	67.4	334,572	68.9	284,347	66.6	320,946	65.1
광주	2,046	0.4	2,169	0.5	2,368	0.5	2,133	0.5	2,388	0.5
대전	3,370	0.7	3,299	0.7	3,296	0.7	3,310	0.8	3,525	0.7
울산	-	-	-		1,025	0.2	831	0.2	1,054	0.2
경기	61,931	13.4	60,340	12.8	60,913	12.5	54,556	12.8	70,792	14.4
강원	5,129	1.1	5,474	1.2	5,737	1.2	6,572	1.5	6,661	1.4
충북	4,055	0.9	4,514	1.0	4,411	0.9	4,110	1.0	4,420	0.9
충남	8,700	1.9	9,257	2.0	9,911	2.0	9,281	2.2	9,150	1.9
전북	4,902	1.1	4,565	1.0	5,143	1.1	5,002	1.2	5,437	1.1
전남	5,356	1.2	6,360	1.4	5,117	1.1	5,954	1.4	6,516	1.3
경북	3,542	0.8	3,357	0.7	3,422	0.7	3,666	0.9	3,804	0.8
경남	4,129	0.9	4,789	1.0	2,932	0.6	2,993	0.7	3,161	0.6
제주	963	0.2	1,031	0.2	1,054	0.2	1,177	0.3	1,122	0.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입이 높은 지역이다.

〈표 24〉와 같이 인천광역시의 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시내로의 인구 이동이 1995년에 67.4%에서 1998년에 1.5%가 증가하였다. 1999년 65.1%, 2000년 69.1%, 2003년 66.2%로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1995년에는 13.4%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1999년에 14.4%로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16.8%, 2003년에는 16.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전입을 보이고 2003년에는 1995년 보다 0.8%의 감소율로 보여 8.2%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충청남도로의 전입이 2%를 유지하며 2003년에는 1.8%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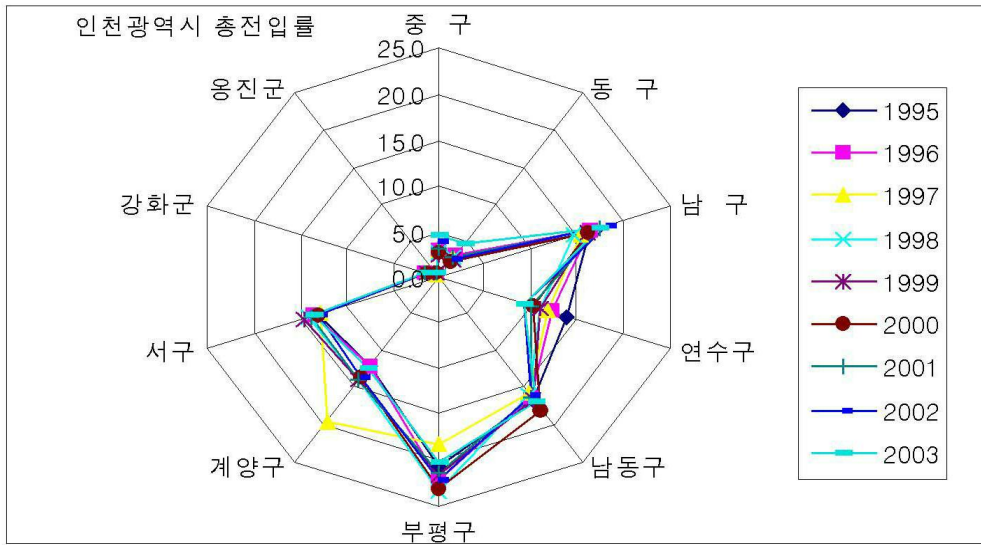
〈표 25〉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 구	2.7	3.0	3.0	2.8	2.4	2.6	3.1	3.8	4.6
동 구	2.9	2.8	2.6	2.7	2.4	2.2	2.6	2.5	4.3
남 구	16.3	16.2	15.3	14.7	16.1	15.9	17.2	18.2	17.5
연수구	13.9	12.1	11.6	10.9	10.9	10.2	10.0	9.1	9.1
남동구	16.5	16.3	15.4	15.8	16.6	17.9	16.2	16.1	16.6
부평구	20.7	22.2	18.2	23.2	21.5	23.0	21.4	22.1	20.0
계양구	12.2	12.1	19.4	13.9	13.9	13.6	13.8	13.6	12.4
서구	13.0	13.6	12.9	14.1	14.5	13.1	13.7	13.1	13.5
강화군	1.5	1.5	1.2	1.3	1.3	1.1	1.5	1.2	1.4
옹진군	0.3	0.3	0.3	0.5	0.4	0.4	0.4	0.4	0.5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입이 높은 지역이다.

〈표 25〉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전입률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20%이상을 차지하고 남구와 부평구가 16%이상의 전입률을 보이고 있다. 1997년도에 계양구로의 19.4%가 전입해 전년도보다 7.3%의 큰 전입률을 보이고 있다. 2003년의 인천광역시 전입률이 점차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표 26〉 인천광역시에서의 총전출률 ,1995-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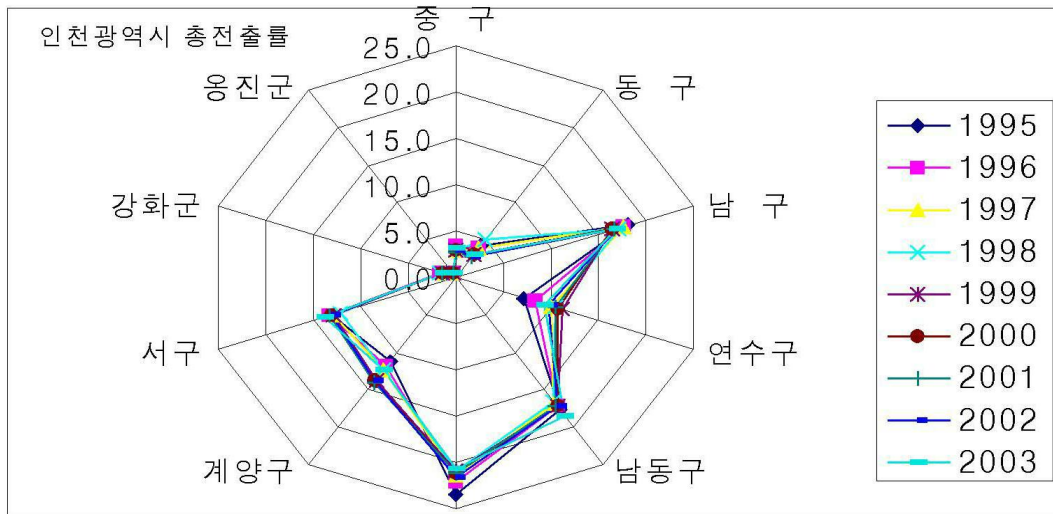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 구	3.2	3.4	2.9	3.0	2.9	2.8	2.8	3.0	3.2
동 구	4.0	3.8	3.8	5.0	3.0	3.1	2.7	2.7	3.0
남 구	18.2	17.8	17.6	17.3	16.6	16.5	16.7	17.1	17.0
연수구	7.3	8.5	10.1	10.4	11.2	10.7	10.6	9.7	9.3
남동구	17.8	17.3	16.9	16.5	17.2	17.2	16.9	17.3	18.5
부평구	23.5	22.1	21.4	21.0	20.8	21.1	21.2	21.5	20.7
계양구	11.0	11.7	12.4	12.6	13.5	13.8	14.0	13.8	12.5
서구	13.2	13.4	13.0	12.4	13.0	13.2	13.3	13.2	13.9
강화군	1.5	1.6	1.4	1.6	1.4	1.3	1.5	1.4	1.4
옹진군	0.4	0.4	0.3	0.4	0.4	0.4	0.4	0.4	0.4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출이 높은 지역이다.

〈표 26〉의 인천광역시의 전출률도 전입률과 비슷하게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서의 전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출률 또한 점차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림 24〉 인천광역시에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3) 경기도로의 전입지

〈표 27-1〉 경기도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1995-2003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경기	1,952,466	(%)	1,905,357	(%)	1,950,705	(%)	1,707,411	(%)	2,079,470	(%)
서울	599,411	30.7	520,566	27.3	495,454	25.4	407,050	23.8	471,841	22.7
부산	17,014	0.9	16,897	0.9	17,298	0.9	16,630	1.0	20,332	1.0
대구	10,032	0.5	10,261	0.5	10,655	0.5	10,459	0.6	11,978	0.6
인천	61,931	3.2	60,340	3.2	60,913	3.1	54,556	3.2	70,792	3.4
광주	9,399	0.5	9,793	0.5	9,989	0.5	9,400	0.6	11,506	0.6
대전	12,720	0.7	14,065	0.7	14,867	0.8	14,293	0.8	17,471	0.8
울산	-	-	-	-	4,976	0.3	4,784	0.3	5,350	0.3
경기	1,082,814	55.5	1,111,487	58.3	1,176,449	60.3	1,043,254	61.1	1,287,046	61.9
강원	26,241	1.3	27,449	1.4	26,549	1.4	25,291	1.5	30,092	1.4
충북	18,286	0.9	19,116	1.0	19,429	1.0	18,393	1.1	22,144	1.1
충남	29,663	1.5	29,913	1.6	31,658	1.6	28,972	1.7	34,752	1.7
전북	21,458	1.1	22,829	1.2	22,706	1.2	19,953	1.2	24,897	1.2
전남	23,081	1.2	23,358	1.2	23,139	1.2	20,390	1.2	29,090	1.4
경북	17,452	0.9	17,797	0.9	18,624	1.0	17,108	1.0	20,095	1.0
경남	19,656	1.0	17,969	0.9	14,143	0.7	13,191	0.8	17,551	0.8
제주	3,308	0.2	3,517	0.2	3,856	0.2	3,687	0.2	4,533	0.2

〈표 27-2〉 경기도의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1995-2003

(단위: %)

	2000		2001		2002		2003	
경기	2,042,327	(%)	2,256,103	(%)	2,449,422	(%)	2,304,535	(%)
서울	435,573	21.3	499,575	22.1	516,765	21.1	457,656	19.9
부산	20,758	1.0	20,771	0.9	21,729	0.9	21,256	0.9
대구	13,071	0.6	13,948	0.6	14,262	0.6	14,745	0.6
인천	67,498	3.3	74,456	3.3	90,856	3.7	84,889	3.7
광주	12,520	0.6	12,713	0.6	14,999	0.6	16,192	0.7
대전	18,360	0.9	18,375	0.8	19,518	0.8	19,641	0.9
울산	5,194	0.3	5,123	0.2	5,498	0.2	6,531	0.3
경기	1,284,156	62.9	1,421,954	63.0	1,554,371	63.5	1,471,552	63.9
강원	31,013	1.5	31,758	1.4	35,161	1.4	35,126	1.5
충북	22,065	1.1	22,828	1.0	25,217	1.0	24,189	1.0
충남	34,994	1.7	36,400	1.6	39,866	1.6	40,012	1.7
전북	26,700	1.3	27,541	1.2	36,525	1.5	33,610	1.5
전남	26,998	1.3	27,773	1.2	28,458	1.2	30,860	1.3
경북	21,345	1.0	21,680	1.0	23,595	1.0	24,003	1.0
경남	17,565	0.9	16,841	0.7	17,962	0.7	19,086	0.8
제주	4,517	0.2	4,367	0.2	4,640	0.2	5,187	0.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출이 높은 지역이다.

〈표 27〉 과 같이 경기도의 전출지별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인구 이동의 경우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로부터의 전출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995년 3.2%에서, 2000년 3.3%, 2003년에는 3.7로 약 3%정도의 인구 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경기도의 전입지별 인구 이동 현황 ,1995-2003

(단위: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경기	1,579,952	(%)	1,652,688	(%)	1,736,957	(%)	1,584,923	(%)	1,905,336	(%)
서울	262,893	16.6	290,660	17.6	298,306	17.2	276,685	17.5	340,653	17.9
부산	11,534	0.7	12,943	0.8	12,374	0.7	12,647	0.8	13,143	0.7
대구	8,372	0.5	8,812	0.5	8,352	0.5	8,286	0.5	8,909	0.5
인천	56,281	3.6	57,879	3.5	66,514	3.8	63,176	4.0	64,569	3.4
광주	8,544	0.5	9,101	0.6	11,122	0.6	9,308	0.6	10,306	0.5
대전	14,881	0.9	17,226	1.0	15,660	0.9	16,927	1.1	16,542	0.9
울산	-	-	-	-	3,892	0.2	3,583	0.2	3,979	0.2
경기	1,082,814	68.5	1,111,487	67.3	1,176,449	67.7	1,043,254	65.8	1,287,046	67.5
강원	22,531	1.4	24,271	1.5	25,690	1.5	27,673	1.7	28,366	1.5
충북	19,147	1.2	20,627	1.2	20,695	1.2	20,011	1.3	21,991	1.2
충남	29,241	1.9	31,377	1.9	34,942	2.0	32,622	2.1	34,233	1.8
전북	16,786	1.1	17,085	1.0	17,495	1.0	19,197	1.2	20,773	1.1
전남	15,373	1.0	16,815	1.0	16,327	0.9	20,155	1.3	22,419	1.2
경북	13,978	0.9	14,741	0.9	14,218	0.8	15,471	1.0	15,604	0.8
경남	14,741	0.9	16,344	1.0	11,153	0.6	11,759	0.7	12,241	0.6
제주	2,836	0.2	3,320	0.2	3,768	0.2	4,169	0.3	4,562	0.2

	2000		2001		2002		2003	
경기	1,858,301	(%)	2,007,156	(%)	2,133,640	(%)	2,082,492	(%)
서울	312,616	16.8	319,738	15.9	321,390	15.1	325,065	15.6
부산	12,073	0.6	12,721	0.6	13,282	0.6	13,703	0.7
대구	8,595	0.5	8,454	0.4	8,410	0.4	9,425	0.5
인천	67,516	3.6	63,017	3.1	66,332	3.1	61,265	2.9
광주	8,949	0.5	8,831	0.4	9,065	0.4	9,833	0.5
대전	16,514	0.9	16,244	0.8	16,423	0.8	17,061	0.8
울산	3,637	0.2	4,001	0.2	3,805	0.2	4,373	0.2
경기	1,284,156	69.1	1,421,954	70.8	1,554,371	72.9	1,471,552	70.7
강원	26,514	1.4	27,034	1.3	27,175	1.3	28,657	1.4
충북	19,900	1.1	19,187	1.0	19,554	0.9	20,484	1.0
충남	31,988	1.7	32,431	1.6	31,388	1.5	37,959	1.8
전북	18,854	1.0	25,287	1.3	16,578	0.8	29,045	1.4
전남	18,535	1.0	18,712	0.9	15,745	0.7	19,685	0.9
경북	13,654	0.7	14,442	0.7	13,841	0.6	15,102	0.7
경남	10,948	0.6	11,208	0.6	12,106	0.6	14,705	0.7
제주	3,852	0.2	3,895	0.2	4,175	0.2	4,578	0.2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입이 높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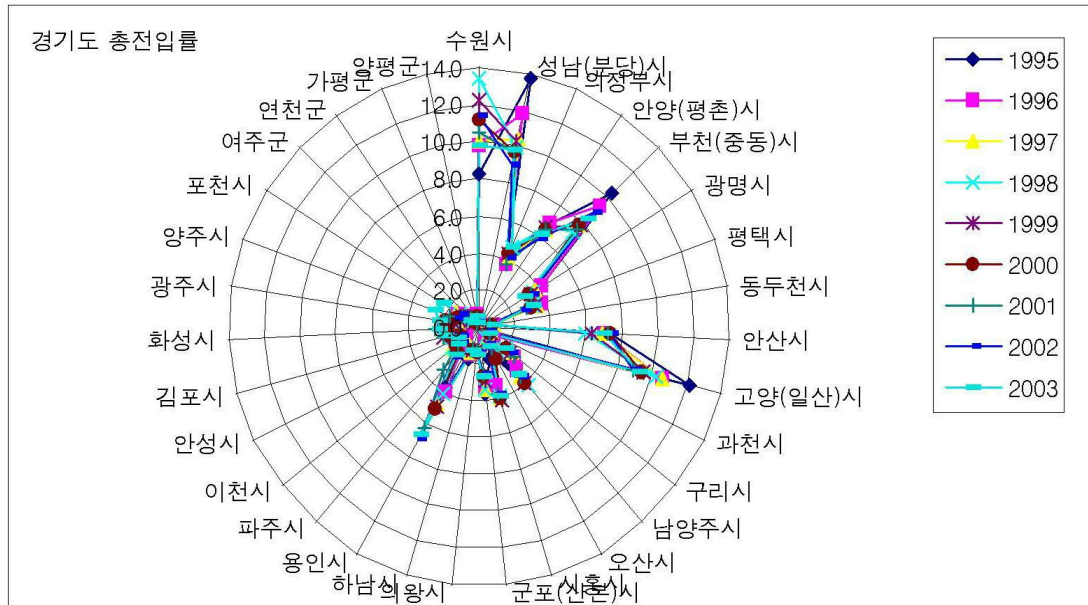
〈표 28〉 경기도의 전입지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도내 전입 현황은 1999년까지 67%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에 약2%의 증가를 보이고, 2002년에는 72.9%로 약 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70.7%로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로 인구 전입은 점차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는 15.6%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로의 전입은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9〉 경기도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원시	8.2	9.7	9.9	13.3	12.1	11.1	10.4	11.4	9.7
성남시	13.6	11.7	10.3	9.8	10.1	9.6	9.6	8.9	9.7
의정부시	3.9	3.7	4.1	4.6	4.3	4.3	3.7	4.0	4.7
안양시	6.6	6.8	6.4	6.5	6.4	6.3	6.4	5.8	6.0
부천시	10.3	9.2	7.8	7.3	7.9	7.8	7.5	8.8	8.4
광명시	4.0	4.0	3.7	3.6	3.4	3.2	3.4	3.4	3.0
평택시	3.4	3.7	3.5	3.2	3.4	3.1	2.9	2.6	3.2
동두천시	0.7	0.8	0.8	0.7	0.7	0.7	0.6	0.6	0.8
안산시	7.3	6.9	6.8	6.0	6.3	7.3	7.2	7.3	6.9
고양시	12.2	10.6	10.5	10.2	9.5	9.4	8.9	8.9	9.2
과천시	1.0	0.9	0.8	0.9	0.8	0.7	0.7	0.6	0.7
구리시	2.0	2.6	2.4	1.9	2.2	1.9	2.6	2.2	1.8
남양주시	2.6	3.1	3.5	4.2	3.9	4.0	3.6	3.6	3.4
오산시	0.7	0.8	0.8	0.8	1.1	2.0	1.4	1.1	1.1
시흥시	1.9	3.3	4.0	3.8	4.2	3.9	3.7	3.7	3.8
군포시	3.6	3.2	3.3	3.3	2.9	2.7	2.5	2.5	2.6
의왕시	1.4	1.2	1.3	1.3	1.2	1.3	1.2	1.4	1.5
하남시	1.9	1.6	1.6	1.3	1.3	1.2	1.2	1.4	1.3
용인시	3.8	3.9	4.7	4.2	4.9	4.9	6.2	7.0	6.5
파주시	1.2	1.4	1.7	1.5	1.5	1.8	3.0	2.1	1.9
이천시	1.1	1.5	2.0	1.9	1.6	1.6	1.5	1.3	1.5
안성시	0.8	0.8	0.9	1.0	1.0	1.1	1.2	1.2	1.3
김포시	1.3	1.1	1.5	1.4	2.1	1.9	2.1	1.9	2.0
화성시	1.4	1.5	1.8	1.6	1.5	1.7	2.4	2.3	2.2
광주시	1.0	1.2	1.3	1.3	1.4	1.8	2.0	2.2	2.2
양주시	0.9	1.0	1.1	0.9	1.2	1.3	1.8	1.4	2.6
포천시	1.2	1.4	1.5	1.3	1.2	1.2	1.1	1.3	2.3
여주군	0.6	0.8	0.7	0.8	0.6	0.7	0.7	0.6	0.6
연천군	0.4	0.4	0.4	0.4	0.3	0.3	0.3	0.3	0.3
가평군	0.4	0.4	0.4	0.4	0.4	0.3	0.3	0.3	0.3
양평군	0.7	0.7	0.6	0.6	0.5	0.5	0.5	0.5	0.6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입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5〉 경기도에서의 총전입률, 1995-2003

〈표 29〉의 경기도에서의 전입률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1998년 13.3%로 높은 전입률을 보이고, 그 후로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9.7%가 전입해 들어왔다. 성남(분당)시 또한 1995년에 13.6%로 높은 전입률 보이고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였다. 부천시와 고양시도 역시 1995년에 10.3%, 12.2%의 전입률을 보이더니,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8.4%, 9.2%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와 평택시는 점차 전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용인시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1995년 신도시개발로 5개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전입률이 증가하였고, 점차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도 또한 전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표 30〉 경기도에서의 총전출률, 1995-2003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원시	10.2	10.4	10.1	11.5	10.9	10.8	10.9	11.4	10.5
성남시	11.9	12.3	11.7	11.2	11.5	10.9	10.7	10.1	10.0
의정부시	4.3	4.0	3.9	3.8	4.0	4.0	4.0	4.2	4.4
안양시	8.8	7.9	8.0	7.6	7.5	7.3	6.8	6.6	6.3
부천시	11.8	10.5	9.6	8.9	9.2	9.0	8.5	8.7	8.2
광명시	5.3	4.8	4.7	4.0	4.1	3.9	4.0	3.8	3.7
평택시	3.6	3.7	3.6	3.7	3.6	3.4	3.3	3.1	3.3
동두천시	0.9	0.9	0.9	0.8	0.8	0.8	0.7	0.7	0.8
안산시	7.1	7.2	7.3	6.7	7.1	7.5	7.2	6.9	6.8
고양시	7.2	8.1	8.8	9.4	9.6	9.4	9.6	9.2	9.0
과천시	1.2	1.1	1.0	1.0	1.0	0.8	0.8	0.7	0.7
구리시	2.1	2.3	2.3	2.2	2.4	2.0	2.2	2.1	2.1
남양주시	2.6	2.7	2.7	3.0	3.0	3.3	3.3	3.4	3.3
오산시	0.8	0.8	0.8	0.8	0.8	1.1	1.2	1.3	1.2
시흥시	1.8	1.8	2.0	2.3	2.8	3.2	3.5	3.6	3.6
군포시	3.3	3.4	3.5	3.3	3.3	3.2	3.1	3.0	2.8
의왕시	1.5	1.4	1.4	1.3	1.3	1.3	1.3	1.2	1.3
하남시	1.8	1.7	1.6	1.6	1.5	1.4	1.4	1.4	1.4
용인시	2.6	2.9	3.8	3.7	3.5	3.8	4.3	4.7	5.0
파주시	1.5	1.5	1.6	1.6	1.5	1.5	1.7	2.0	2.0
이천시	1.3	1.5	1.7	1.9	1.6	1.7	1.6	1.5	1.7
안성시	0.9	0.9	0.9	1.0	1.0	1.1	1.1	1.1	1.3
김포시	1.0	1.0	1.1	1.4	1.3	1.4	1.5	1.6	1.8
화성시	1.4	1.5	1.6	1.7	1.5	1.6	1.8	1.9	2.0
광주시	0.9	1.0	1.0	1.1	1.1	1.2	1.5	1.5	1.7
양주시	1.0	1.0	1.0	1.0	1.0	1.0	1.1	1.3	2.6
포천시	1.2	1.3	1.3	1.4	1.2	1.3	1.2	1.2	2.9
여주군	0.7	0.7	0.8	0.8	0.7	0.7	0.7	0.7	0.7
연천군	0.5	0.5	0.5	0.5	0.4	0.4	0.4	0.4	0.4
가평군	0.4	0.4	0.4	0.4	0.4	0.4	0.4	0.3	0.3
양평군	0.7	0.7	0.7	0.6	0.6	0.6	0.5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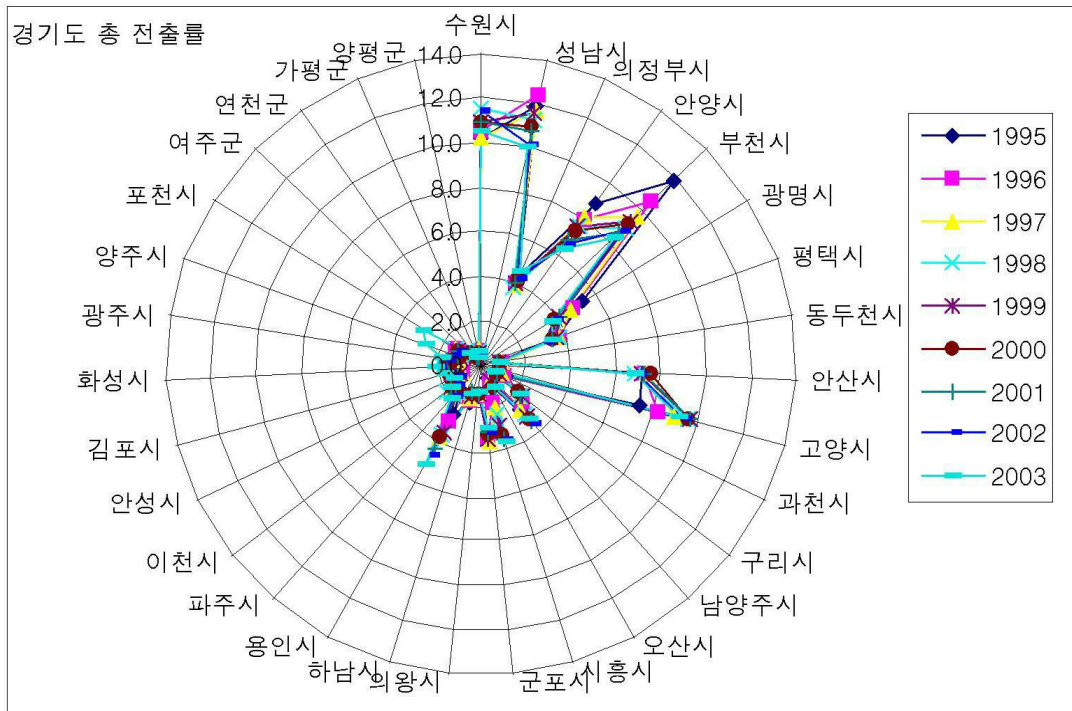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연보』, 1995-2003

주 : 검은부분은 전출이 높은 지역이다.

〈표 30〉 경기도에서의 전출률을 보면 모든 시 들이 1%미만의 전출률을 보이고 있다. 5개 신도시인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

시들 역시 1995년에서 2003년까지의 전출률은 높지 않다.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양주시, 포천시는 점점 전출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의 남양주시는 2.6%였으나 2003년에는 3.3%가 전출되었고, 시흥시는 1995년 1.8%, 2003년 3.6%, 용인시는 1995년 2.6%, 2003년 5.0%, 양주시는 1995년 1.0%, 2003년 2.6%, 포천시는 1995년 1.2%, 2003년 2.9% 로 전출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 경기도에서의 총전출률,1995-2003

IV.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이동의 요인은 사회경제적, 심리적, 정책적 배경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즉 공장단지나 산업지역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든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 주택이 건설되고, 다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다시 거대한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된다.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가 만들어지고 대도시가 형성이 된다. 도시에 인구가 넘쳐나면 주변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려는 지역정책과 함께 교외화 정책이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이 밖에 기타요인으로 가계소득, 지가, 쾌적성 등의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1. 주택의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모여들면 가구가 늘어나고 가구수가 증가하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건설이 된다. 사람들은 기존의 주택을 버리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고, 기존의 주택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처럼 다른 주택을 찾아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주택여과과정(filtering)이라고 하며, 이는 주택문제, 직업문제, 가족문제, 교육문제, 주거근린환경문제, 자연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일어난다. 1997년 인구 이동 특별조사에 따르면, 시도내 이동에서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시도간 이동에서는 직업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에서 1995년 까지는 수도권내 5개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크게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지역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주택건설현황을 보면 1995년에는 43.2%, 1997년에 38.4%로 잠시 주춤하다가 1998년에 다시 48.7%, 1999년에 58.7%로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50%이상이 수도권에 주택을 건설하였다. 또한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지역에 50%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어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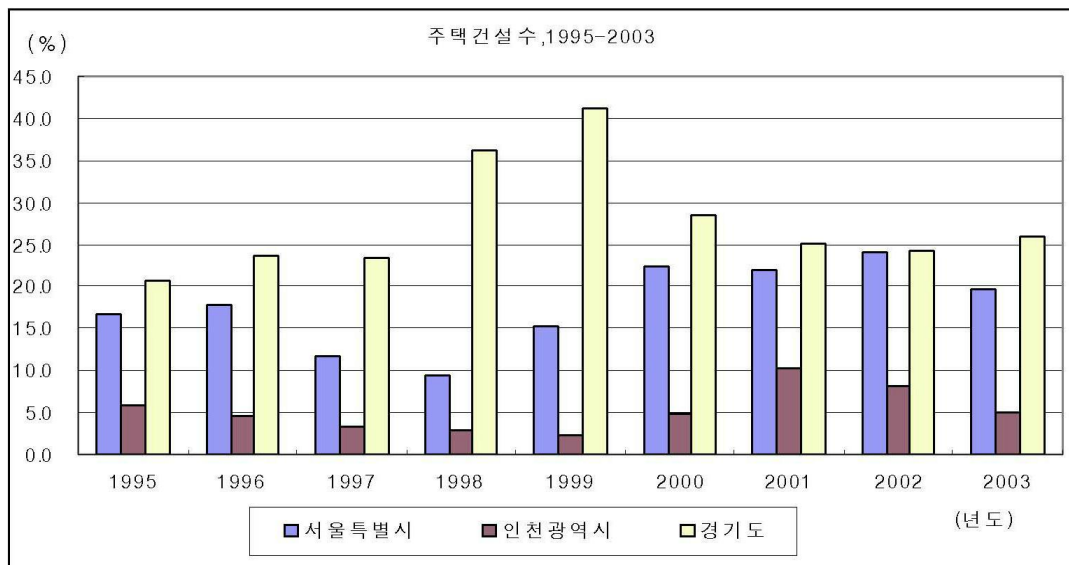
<표 31>

<표 31> 수도권 주택건설 현황률,1995-2003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특별시	16.7	17.7	11.8	9.5	15.2	22.4	22.0	24.0	19.8
인천광역시	5.9	4.6	3.3	3.0	2.3	4.7	10.3	8.3	5.0
경기도	20.6	23.6	23.3	36.2	41.2	28.5	25.2	24.2	26.0
수도권	43.2	45.9	38.4	48.7	58.7	55.6	57.5	56.5	50.8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건설』, 1995-2003



<그림 27> 수도권 주택건설 현황률,1995-2003

전국 총 주택수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7,160,386호(26.2%), 1995년에는 9,204,929호(33.7%), 2000년에는 10,959,342호(40.1%)로 1995년은 1990년보다 7.5%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995년보다 6.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난다. 이중 수도권은 서울이 1995년 5.1%, 2000년 4.5%, 인천이 1995년 13.9%, 2000년 7.3%, 경기도는 1995년 11.9%, 2000년 11.0%로 나타난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서울은 9.6%, 인천은 21.2%, 경기도는 22.8%로 수도권중에서 경기도가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국에서 경기도는 16.8%의 주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의 지역성장이 돋보이는 시는 다음과 같다. 시흥시 46.9%, 고양시 40.8%, 남양주시 39.8%, 군포시 39.1%, 용인시 38.0%, 오산시 34.2%, 의정부시 32.7%, 성남시 30.0%, 수원시가 25.1%, 부천시 17.0%, 안양시 15.8%로 5개 신도시와 그 주변 시들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 기간 중 총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국 가구는 1990년에 비해 1995년은 4.1%, 2000년 3.5%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1995년에 1.7%, 인천9.2%, 경기도 8.5%로 2000년에는 서울 1.4%, 인천4.7%, 경기7.7%로 전체적으로는 서울은 3.1%, 인천은 13.8%, 경기 16.2%로 수도권중에서도 가구수의 증가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국에 비해 경기도의 가구증가율은 16.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내의 가구증가율이 높은 시들을 살펴보면, 시흥시 38.3%, 고양시 36.6%, 남양주시 34.1%, 용인시 29.8%, 군포시 29.3%, 안산시 26.1%, 성남시 19.7%, 안양시 8.9%, 부천시 7.3%로 5개 신도시 중 고양시와 군포시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⁹⁾ 특히 시흥시와 남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94.2%(2002), 100.4%(2001)로 주택증가율도 가구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¹⁰⁾

수도권 지역내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의 총전출자 중 대부분은 경기도로 이주 하였고, 대부분은 경기도의 시지역인 고양시, 남양주시,

9) 통계청, 1990, 1995, 2000 「주택 총조사」,

10) 시흥시청, 2002, 남양주시청, 2001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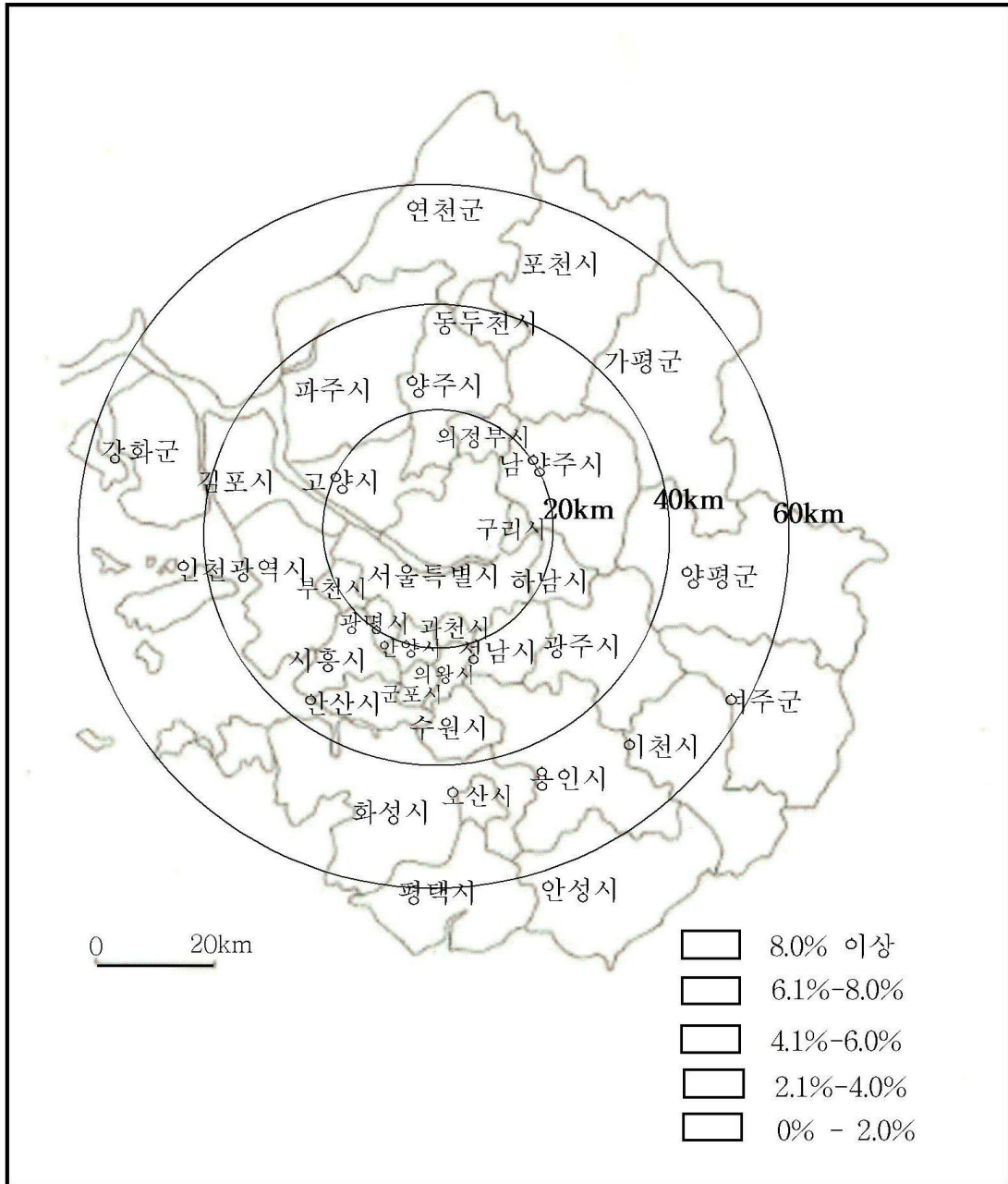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로의 전출이 많다. 신규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남양주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는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1995년 서울에서 2,487,230명이 총전출하여, 이 중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수는 599,411(24.1%)명으로 4분의 1이다. 1997년에는 22.0%, 2000년에는 19.2%, 2002년에는 21.3%로 2000년까지 전입률이 줄어들더니, 2001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의 전입률을 살펴보면 5개 주요 신도시는 1995년 이후로는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지만, 주변 시들을 보면 1997,1998년에는 수원시와 남양주시로의 전입이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시흥시와 김포시가 증가현상을 보인다. 2000년에 들어서면 안산시,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용인시, 안성시, 의정부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가 전입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용인시는 2002년에 7.0%로 1995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는 신도시 개발이후 신도시는 더 이상의 주택이 증가 하지 않으므로 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발정책과 맞물려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는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고양시의 인구이동의 특성을 주택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요인 중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 요인과 주거지역의 환경을 나타내는 인구 밀도와 1인당 공원면적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¹¹⁾

이렇듯 사람들은 새로운 주택을 찾아 이주를 하고, 기존의 주택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차지를 한다. 수도권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을 하면 기존 주택으로 수도권내에서 좀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과 타 권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입하려는 사람들로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택여과과정(filtering)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

11) 진범석, 2002, 고양시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28> 서울시에서 경기도 시·군으로의 전출률,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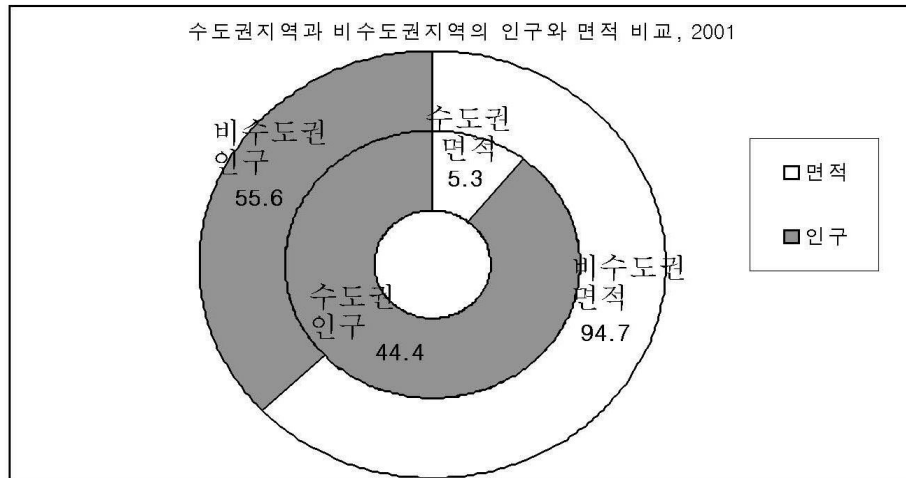
2.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우리나라는 1970년만 해도 1차산업인구가 우위를 이루었으나, 점차 2·3차 도시적 산업인구가 증가하면서 1991년에는 99.2%, 1995년 99.3%, 2000년에는 99.4%, 2002년에는 99.6%로 도시형 산업국가로 변화되었다. 전국의 3차 산업 사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1년 83.3%, 1995년 86.1%, 2000년 87.2%, 2002년 86.6%로 고용구조가 3차 산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내 3차 산업의 사업체를 보면 1995년 서울 25.5%, 인천3.8% 경기 12.0%로 1998년 서울 23.9%, 인천3.9%, 경기 13.0%로 2002년에는 서울 23.7%, 인천4.1%, 경기14.4%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서울시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¹²⁾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져 지역불균형을 만들었고 이는 인구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1990년에 전국인구가 4천3백3십만 명으로 도시인구는 3천5백5십만 명으로 81.9%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1995년에는 85.5%, 2000년에는 89.0%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전국인구 4천8백2십만 명 중 4천2백3십만 명이 도시인구로 도시화율은 87.7%로 전국의 약10%정도만이 농촌인구로 남아있다. 수도권은 서울100%, 인천97.8%, 경기89.1%가 도시인구이다. 전국토 면적 중 도시면적은 25%이고 2001년에는 도시인구 4,23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비해 수도권의 면적은 5.3%인데 수도권의 인구는 44.4%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¹³⁾ <그림 29>

12) 통계청, 1991-2002,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13) 한국도시연감, 200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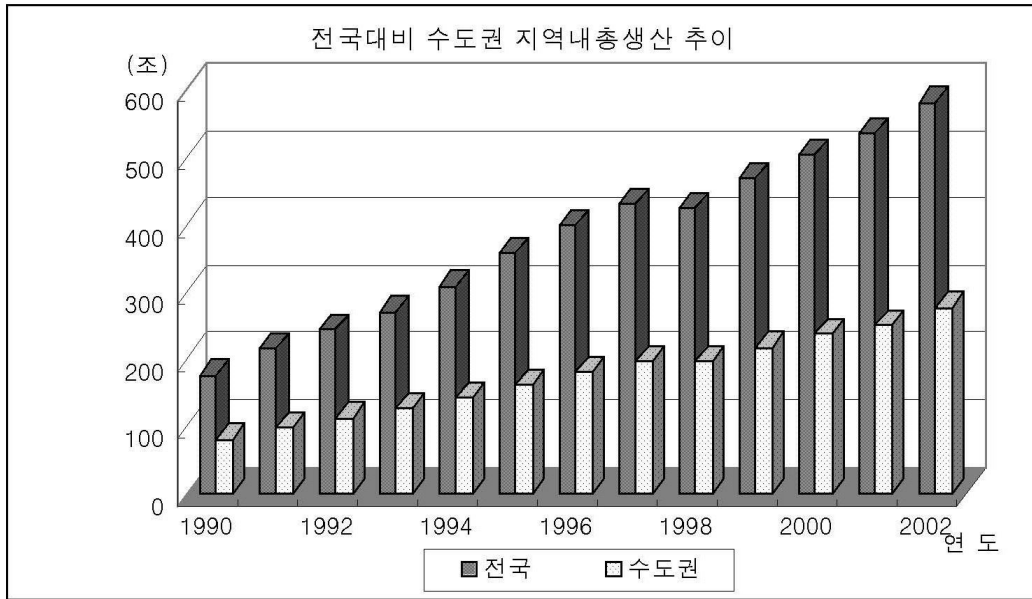
〈그림 29〉 수도권지역의 인구와 면적 비교, 2001
 자료: 한국도시연감, 2002, 행정자치부

수도권의 경제와 산업성장이 1990년에서 2002년의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ODY)의 전국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에는 전국의 46.3%가 수도권에서 생산하고, 1995년 45.5%로 약간 떨어지다가 2000년도에는 47.2%로 다시 상승한다. 2002년에는 47.8%로 전국 생산액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표 31〉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추이, 1990-2003
 (단위: 조 %)

연도	전국	수도권	(%)
1990	177	82	46.3
1991	217	100	46.1
1992	244	113	46.3
1993	271	127	46.9
1994	310	143	46.1
1995	358	163	45.5
1996	399	182	45.6
1997	432	198	45.8
1998	425	197	46.4
1999	470	218	46.4
2000	504	238	47.2
2001	535	252	47.1
2002	582	278	47.8

자료: 통계청, 「지역 내 총생산 및 지출」, 1990-2002



〈그림 30〉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추이,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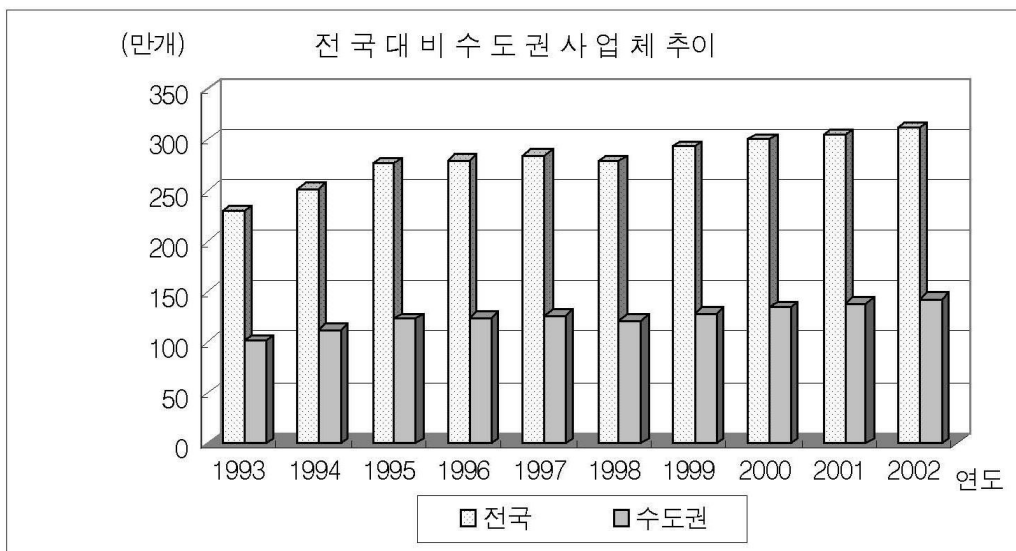
〈표 32〉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단위: 만개, 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수도권	(%)	전국	수도권	(%)
1993	230	102	44.3	1,225	625	51.0
1994	252	112	44.4	1,258	612	48.6
1995	277	123	44.4	1,363	668	49.0
1996	281	124	44.1	1,401	696	49.7
1997	285	126	44.2	1,347	654	48.6
1998	279	122	43.7	1,242	600	48.3
1999	293	129	44.0	1,292	623	48.2
2000	301	135	44.9	1,360	666	49.0
2001	305	138	45.2	1,411	701	49.7
2002	313	143	45.7	1,461	725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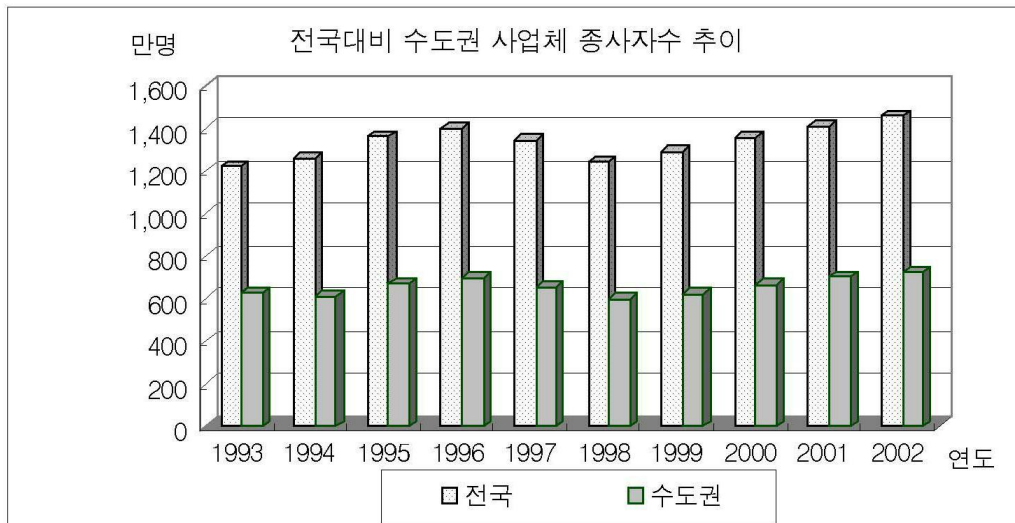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3-2002

1993년 전국 사업체수는 230만개 중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 수는 102만개 전국대비 44.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사업체 수는 점차

늘어나서 1997년에는 285만개 2000년에는 300만개를 넘어 2002년에는 313만개에 이르렀다.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1995년에 44.4% 1998년에 43.7% 2001년에는 45.2% 이고 2002년에는 143만개로 45.7%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2002년 기준으로 725만 명으로 전국대비 4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변화 추이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0만 명의 고용자가 증가하였다. <표 32>



<그림 31>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그림 32> 전국대비 수도권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1993-2002

인구를 흡인하는 산업중 하나는 제조업이다. 최근 1999년에서 2002년 까지의 제조업체 수를 살펴보면, 전국 제조업체수는 1999년 91,156개, 2002년 110,356개로 수도권이 1999년 55.6%, 2002년 56.6% 이다. 전국 제조업체중 수도권에 50%이상이 입지해있고, 이중 경기도는 2002년 29.6%로 나타난다. 또한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정도가 된다. 1999년 45.3%, 2000년 46.6%, 2001년 46.1%, 2002년 46.8%에서 경기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1999년 26.7%, 2000년 28.2%, 2001년 28.0%, 2002년 28.3%로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이러한 인구 이동의 유입을 도와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인구성장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중 금융·중개·정보·기술·영상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산업·소프트웨어 사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인구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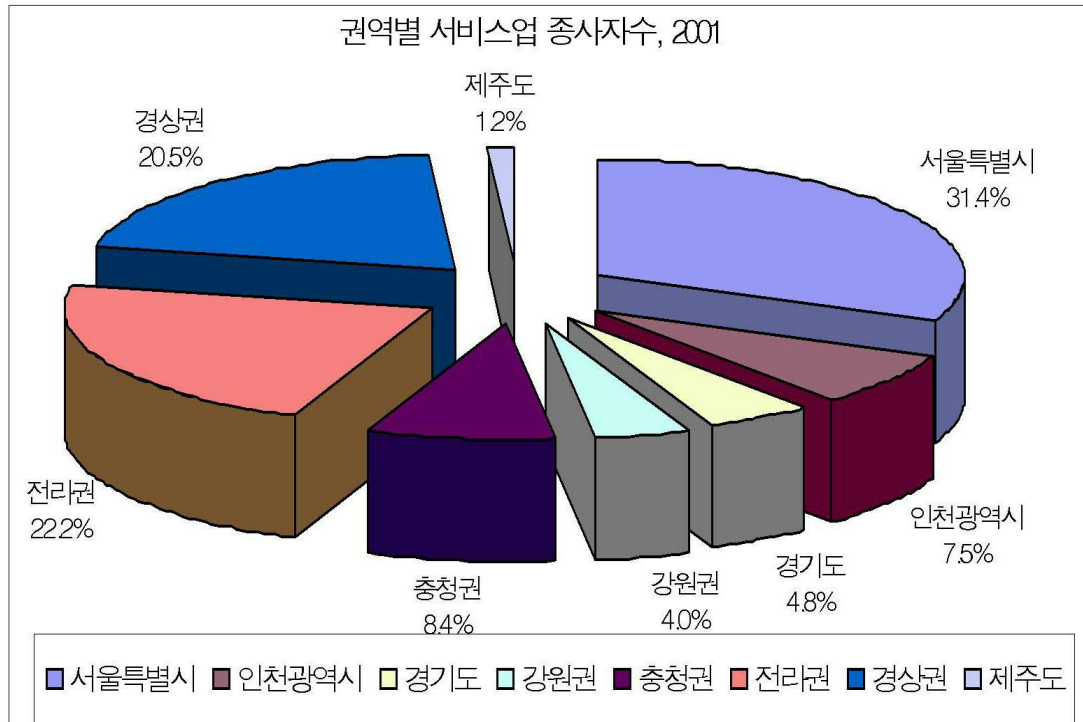
〈표 33〉을 보면 권역별 서비스업 종사자수를 보면 수도권만 2001년도에 43.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서울특별시는 31.4%, 인천광역시는 7.5% 경기도는 4.8%로 나타난다.

〈표 33〉 권역별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01년

(단위:%)

권역별	(명)	(%)
서울특별시	1,334,556	31.4
인천광역시	319,854	7.5
경 기 도	203,207	4.8
강 원 권	171,868	4.0
충 청 권	359,308	8.4
전 라 권	946,561	22.2
경 상 권	870,219	20.5
제 주 권	49,375	1.2
전 국	4,254,948	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 2001



〈그림 33〉 권역별 서비스업 종사자 수, 2001년

또한 정보통신 산업을 보면 1997년에는 27.1%, 1999년에는 30.5%, 2002년에는 26.9%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¹⁴⁾ 소프트웨어 사업체 현황을 보면 2002년 사업체수는 12,487개로서 수도권이 70.4%를 차지하고 있다. 패키지S/W(68.4%), 컴퓨터관련 서비스(73.3%),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72.0%), 임베디드S/W(71.5%), 컴포넌트(77.2%), DB제작검색대행관리(64.4%)로 수도권이 약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생으로 인구가 모여 도시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균형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가 극대화를 이룬 지역이 수도권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산업의 변화와 이로 인해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이동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적 산업 시설물이 건설되고, 새로운 취업기회가 제공되는 경기도로 인구는 모여들어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5)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2002

3. 기타요인

인구이동의 요인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수도권 내의 취업문제 외에 기타요인으로서는 교통의 확산 및 정책적 조치, 저렴한지가, 쾌적한 환경, 지역정책, 교육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통의 확산으로 도로가 건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이동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도로 및 운송수단의 확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도와주었다. 2002년의 자동차 등록대수율을 보면 전 자가용승용차중에 서울시는 20.8%, 경기도는 22.6%로 수도권은 48.8%가 등록이 되어있다.¹⁶⁾

또한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전입하는 현상은 행정 제도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적 조치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개발규제나 서울시내 건축 활동의 억제와 고부과세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주변지역이 보여주는 저렴한 지가 역시 경기도로 인구를 유인하게 한 요인이다. 지가는 용지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구과밀과 용지부족 등에 의해 지가가 크게 양등한다. 이에 비해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저렴하여 서울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 마련에 한 몫을 하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빌려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경기도에서는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중심도시보다 주변지역인 경기

16) 건설교통부, 2002, 「건설교통 통계연보」,

도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져다주고, 질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알맞은 곳이라는 등의 좋은 환경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어메니티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를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이외에 지역정책 변화 역시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집중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정책은 억제정책, 분산정책, 수용정책, 확대개발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V. 결 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은 도시화와 근대화를 진전시켜 인구 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격차로 인한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며, 인구이동은 경제적으로 우위인 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도간의 장거리 이동보다 동일 시도내의 단거리 이동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는 거리의 제약이 없다. 1990-2003년의 순전입 인구 변화에서 꾸준히 양이 수치를 나타내는 곳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전입초과, 타권역 전출초과'로 정리된다. 따라서 전국의 인구이동은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압도적이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순전입되는 권역 중 1997년까지는 전라권이 우세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2003년까지는 경상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전입되어 온 인구가 증가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권이외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일부 시도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서울과 경기도의 이동이 크게 차지한다.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1995년까지는 서울에서 40km이내의 신도시로 많이 이입이 되었지만, 2003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60km이내의 위치한 수도권지역으로도 많은 전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에도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해 있거나 경인선, 경부선, 의정부-동두천 축으로 확장되어 있는 교통망을 따라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교외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수도권내의 인구이동을 보면 1995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노원구, 강남구, 송파구로 나타난다. 인천광역시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남구, 남동구, 부평구이고, 경기도의 전입·전출이 높은 지역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 수도권내의 취업문제, 기타요인으로 나타난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수도권 인구 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신도시 건설은 주택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이 서울인구를 유인하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해 나간 자리에는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주택여과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수도권으로 도시화가 극대화 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산업화 특히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최근 첨단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인구이동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로 인구 분산을 유도한 정책적인 조치도 영향을 받는다.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로 확충과 중심도시의 확장 또한 교외지역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보다 저렴한 지가와 쾌적한 환경 또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을 만들게 한 요인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권용우, 1986,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9, “후기산업사회 수도권 의 산업구조 및 지역구조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주, 2001, “전입전출인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 강원도 원주시를 사례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2000, “김포동의전입인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중, 2002, “수도권 인구이동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희집, 2002, “인구이동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구성에 관한연구: 인천광역시 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범석, 2002, “고양시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용우·이자원, 1995, “수도권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연구,” 『국토계획』 30(4).
- 권용우·이자원, 2000,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 연구』 34(3).
- 권용우, 2000, “20세기 서울의인구 변화,” 『국토서울』 60.
- 권용우, 2000, “수도권 통근권역의 공간적 범위 1995~1997,” 한국도시지리학회 3(1).

<단 행 본 및 웹 사이트>

- 권용우·김대영·이자원, 2001,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권용우, 2002,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이희연, 1998, “인구지리학 제4판,” 법문사, p.426

이외희·조규영, 1999, “수도권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통계청, 1990~2003,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1990~2003,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1997, 「인구이동특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1~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1, 「서비스업 총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002, 「건설교통 통계연보」.

시흥시청, 2002, 남양주시청, 2001 통계연보 .

한국도시연감, 2002, 행정자치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2.

<http://www.kosis.nso.go.kr/>

<http://municipal.mogaha.go.kr/>

<http://www.moct.go.kr/>

〈외국 문헌〉

George j. Demko, Harold M. Rose, And George A. Schnell, 1980, *Population Geography : A Reader*. McGraw- Hill Book Company, p286.

Plane, D.A., and Isserman, A.M.,1983, "U.S. interstste labor force migration: an analysis of trends, net exchanges, and migration subytems,"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17:251-66.

ABSTRACT

The Change of Mig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1990–2003

Lee, Sook-ky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emen ' s university

This report look into migration stream of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0~2003. The movement change of in-migration and out-mig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eoul, Gyeonggi and Incheon from 1995 to 2003.

The spatial pattern of the regional migration in Korea is found to be one of intraregional rather than interregional movement. But the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n't restricted by the distance. The metropolitan whole inmigration show Seoul metropolitan region, Gyeongsang metropolitan region, Jeolla metropolitan region, Chungcheong metropolitan region, Gangwon metropolitan region, Jeju metropolitan region as this order. Net inmigration has taken place only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during the period of 1990~2003. So migration in Korea is

summarized "Seoul metropolitan region in-migration excess" and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out-migration excess". Recently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in the Busan, Daegu, gwangju, Daejeon metropolitan region and the some part of Chungcheong except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net immigration the immigration excess is constantly showed to the province of Gyeonggi. Because the province of Gyeonggi is located near Seoul and has comfortable circumstances after developing the new town. The migration into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he suburbanization from Seoul to the province of Gyeonggi. Suwon city, Seongnam city, Uijeongbu city, Bucheon city, Gwangmyeong city, Ansan city, Goyang city, Namyangju city, Yongin city and etc is the province of Gyeonggi main immigration from the Seoul dweller. These cities which are situated wity in 40km from Seoul is concentrated immigration area. These area that lie adjacent to the Seoul or connect with principal road network almost accord with a suburb of Seoul.

According to migration in the metropolitan, Nowon gu, Gangnam gu and Songpa gu is mentioned the immigration and outmigration high area from 1995 to 2003. the high immigration and outmigration area in the inchon metropolitan region is Nam gu, Namdong gu and Bupyeong gu and the high immigration and outmigration area in the province of Gyeonggi is Suwon city, Seongnam city, Goyang city.

Lastly the regional migration is result of metropolitan job opportunities, availability of housing, and the other factors including the availability of the transportation systems, the efficient regional policies, and the comfortable amenity. On account of the effects, the population of Gyeonggi province is increasing.